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콜롬비아에서
평화를 찾음, 34쪽

새로운 사도 탐방, 8, 14쪽

부활절 이야기 나누기,
친10쪽



앞 표지: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에서, 콜롬비아 두이타마 지방부
 바보사 지부의 지부장인 이스마엘 카레노와 그의 아내 레이디,
 두 살 된 아들, 펠리페. 위: 헤노베바 산체스(오른쪽)는 메텔린
 교회의 개척자였다. 그녀와 세상을 떠난 남편 루이스 앙헬은
 1967년에 침례 받았다. 왼쪽에 아들 마리오와 며느리인
 달릴라가 있다. 왼쪽 삽입: 카르타헤나의 초등학교 어린이는
 콜롬비아 교회의 미래를 상징한다. 오른쪽 삽입: 현재
 카르타헤나 스테이크장인 하이로 바르디(왼쪽)와 라파엘 우요케.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34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친구들 표지
삽화: 세리 린 보이어 도터



"라벨의 메시지", 친2쪽 참조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1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상호부조회 조직 안에서 기뻐함
- 26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 32 제사 정원회: 감리 감독단과의 인터뷰
- 34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마빈 케이 가드너*
- 48 애독자 편지

"제사 정원회", 3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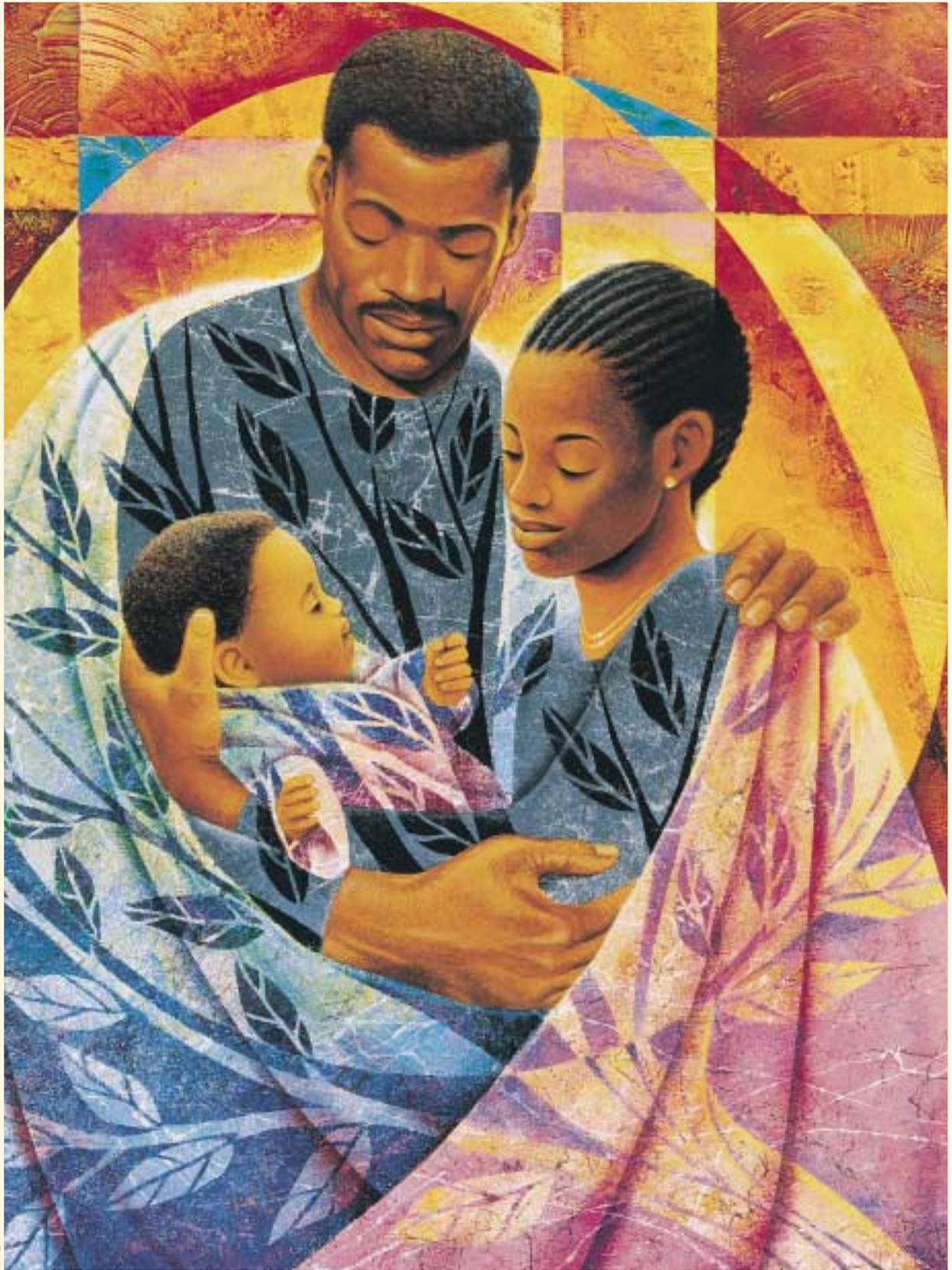
청소년

- 20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새나 버틀러*
- 24 포스터: 어떤 음악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
- 31 어려움을 각오하는 제사 *마이클 칩맨*
- 42 어린 양이 팔리던 날 *줄리 에이 매스터즈*
- 44 우리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 시 올슨*
- 47 짧은 메시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루이스 아리엘 호세
특별한 월요일 오레아바 오히와부콜라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라벨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마가렛 리퍼스*
- 친6 친구가 친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빛 *수잔 더블류 태너*
- 친8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
- 친10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부활절 프로그램 *론다 겁 힌리치슨*
- 친13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 친14 구조 톰 로울스톤
- 친1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기도 아론 로메로 두아르테





박사 김지

그림: 키스 말레트, 부드러운 순간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율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위스틴, 리처드 지 스키프,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더블류 롤프 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우, 수잔 브렛, 샤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텔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레이 오데커, 이럼 시 울슨, 슈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엘,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치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틴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틴슨

통 권: 제 468호, 제 42권, 제 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및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권면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rch 2005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20쪽: 본 기사에서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말한다. 이 사건들은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는 데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나라나 도시에서 전파되기 위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묻는다. 어떻게 주님은 복음이 그들의 조상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가?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게 한다.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34쪽: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콜롬비아의 성도들과 비교한다. 콜롬비아의 성도들이 문제를 극복하는 한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적용할 것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성전 보기를 좋아합니다”, 44쪽: 이 기사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 준다.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히로누이와 메리라니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 보게 한다. 성전에 가거나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받는 축복에 대해 말한다.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성전 여행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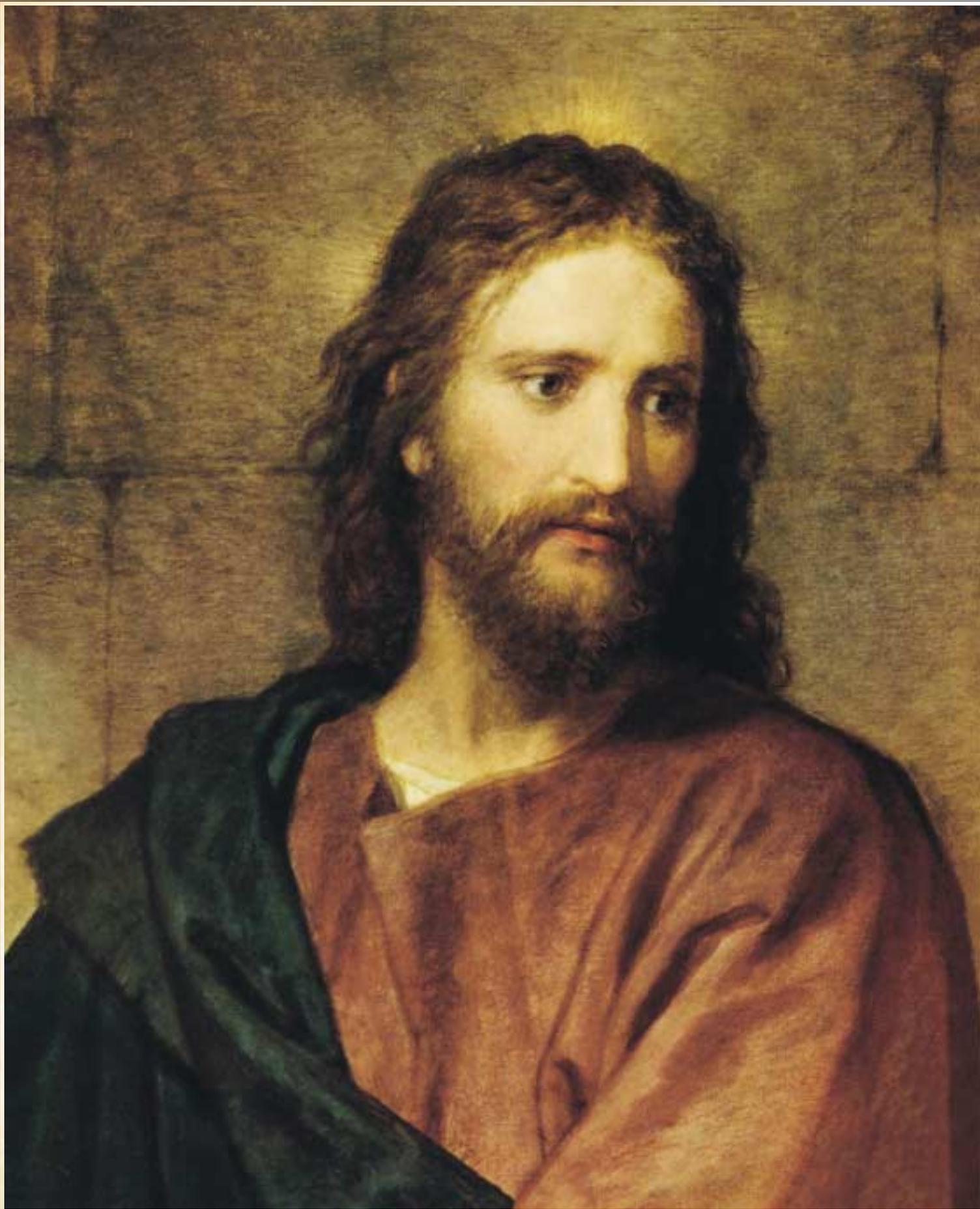
“기록하신 주님의 빛”, 친6쪽: 가족에게

여러 개의 전구나 태양을 그리게 하고 그 위에 각 가족의 성명을 쓰게 한다.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그녀의 삶에서 “빛”이 되었는지를 함께 읽는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부활절 프로그램”, 친10쪽: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활절에 관한 그들의 느낌을 나누게 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있는 부분들을 돌아가며 차례로 읽게 한다. 제언된 그림과 노래를 사용한다. 구세주의 구속의 희생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신앙, 친6
가르침, 1	심판, 친2
가정 복음 교육, 7	안식일, 47
가정의 밤, 1, 47	예수 그리스도, 2, 42,
가족, 친6, 친8	친2, 친4, 친10, 친13,
간중, 2, 친4, 친6	친14
겸손, 친2	예언자, 친4, 친8
교회사, 26	우흐트도르프, 디터 에프,
구원의 계획, 친14	8
맥케이, 데이비드 오, 친8	음악, 24
방문 교육, 25	자람, 34
베드나, 데이비드 에이, 14	정원회, 31, 32
봉사, 42	종교 개혁, 20
부활, 2, 친10	초등학교, 친4
부활절, 2, 42, 친10	콜롬비아, 34
사도, 8, 14	타히티, 44
상호부조회, 25, 26	평화, 34
성전 및 성전 사업, 44	폭력, 친16
세계적인 교회, 34, 44	표준, 24
속죄, 2, 42, 친10	회개, 친14
신권, 31, 32	회복, 20, 25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 리 각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간증이 영적인 은사로서,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¹ 하늘에서 온 그러한 증거는 비록 우리가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에게 성스러운 내적인 평안과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한 증거를 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이 제게 알려졌다는 확고한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약전서의 간증들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초의 사도들의 부름과 주님의 신성함에 대한 그들의 간증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²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다른 초기 사도들 중 몇 사람에게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³

베드로는 구세주의 신성에 대해 자주 간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난 것을 보시고 십이사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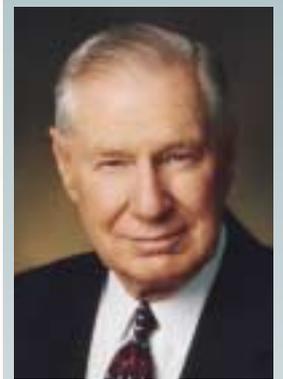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⁴

구세주의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도 그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받았습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그러한 증거를 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이 제게 알려졌다는 확고한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⁵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부활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에서보다 그분에 관한 더 큰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중 마지막 한 주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쪽으로 멀리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벳바게를 통해 산마루를 지나가셨습니다. 수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목요일 밤은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⁶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곧 있을 배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앗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⁷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
또 잔을 가지사 ...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후에 성찬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⁸

그들은 찬미한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걸으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 첫 번째 기슭에 도착하자 그분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⁹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¹⁰

더 자세한 설명은 교리와 성약에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¹¹ 그분의 고통은 “극심”하고 “격렬”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¹²

유다는 구세주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종종 그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들과 관원들의 무리가 횃불과 검을 들고 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기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으며, 아마도 그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 바닥의 작은 내를 건너 동산으로 들어올 때의 모든 발자국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의문의 여지도 없이 그들은 당시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¹³

예수의 재판

처음 질문을 받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¹⁴ 이 예비 심문은 가이바의 뜰과 공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심문에 대해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¹⁵ 그것은 법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¹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¹⁷

공식적인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었으며 죄명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¹⁸

빌라도 앞에 처음 서셨을 때의 다른 죄명은 선동죄였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¹⁹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²⁰

이 후에 예수께서는 헤롯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빗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서로 친구가 되니라”²¹

예수께서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유대의 로마 총독은 다시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흥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²²

십자가에 못박히심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²³ 이 무렵 그들은 예수께 입혔던 흥포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 끌고다-“해골의 곳”-로 데려갔습니다.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은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분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²⁵라고 적은 죄패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²⁵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²⁶

제육시부터 제구시까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출처: 크리스티안 아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뜻이라”²⁷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²⁸

옆에 서 있던 로마 병사들도 약간의 간증을 얻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²⁹

요한은 병사들이 예수께서 벌써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안식일이 오기 전에 사망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꺾는 풍습을 따르지 않고 다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³⁰ 주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³¹ 빌라도는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약 백 근쯤 갖고 왔습니다.³² 무덤에는 경비병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³³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킴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³⁴

예수의 부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³⁵

여인들은 급히 달려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열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 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마포와 머리를 찢던 수건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³⁶

그 후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져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³⁷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열 명의 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³⁸

저는 특별한 증인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들과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사업은 그분의 거룩한 사업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그분의 사업과 영광, 즉 충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³⁹이 성취되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

주

1. 요한복음 3:27.
2. 베드로후서 1:16.
3. 요한복음 1:35~36, 40~41.
4. 요한복음 6:67~69.
5. 요한복음 11:21, 23~27, 43~45.
6. 누가복음 22:14, 17~18.
7. 요한복음 13:26~28.
8. 마가복음 14:22~24.
9. 마태복음 26:38~39, 42.
10. 누가복음 22:44.
11. 교리와 성약 19:18.
12. 교리와 성약 19:15 참조.
13. 요한복음 18:4~8, 12.
14. 요한복음 18:20.
15. 마가복음 14:56.
16. 마태복음 26:63.
17. 마가복음 14:62~64.
18. 누가복음 22:67~71.
19. 마가복음 15:2.
20. 누가복음 23:4.
21. 누가복음 23:8~12.
22. 마태복음 27:28~29.
23. 마태복음 27:32; 누가복음 23:26 참조.
24. 마태복음 27:31, 33, 37~38 참조.
25. 누가복음 23:34.
26. 마태복음 27:35~36.
27. 마태복음 27:46.
28. 누가복음 23:46.
29. 마태복음 27:54.
30. 요한복음 19:31~36 참조.
31. 마태복음 27:57~58 참조.
32. 요한복음 19:39 참조.
33. 마태복음 27:62~66 참조.
34. 마태복음 28:2~4.
35. 누가복음 24:4~6.
36. 요한복음 20:3~7 참조.
37. 요한복음 20:15~17.
38. 누가복음 24:13~48; 요한복음 20:19~28 참조.
39. 모세서 1:39 참조.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 세 문장을 읽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에 대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 토론한다. 제자들이 간증을 얻는 이야기를 하나 이상 나누고 토론한다. 마지막 단락을 읽고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전한다.

2. 부활절에 대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말씀한 것을 토론한다.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편 참조)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어떻게 우리의 간증을 깊게 할 수 있는가? 부활 절기 동안 구세주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도록 격려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9 73년 12월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 사장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다섯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루프트한자 소속 737 여객기를 납치하여 인질들을 태운채로 그리스 아테네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32명이 로마에서 사망하고, 탑승하고 있던 또다른 인질 한 명이 방금 살해되어 즉시 아테네 활주로에 내버려졌다.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공포에 떠는 인질들과 더불어, 흥분한 납치범들은 로마에서 베이루트, 아테네, 다마스커스를 거쳐 쿠웨이트로 가라는 비정상적인 항로를 지시했다.

루프트한자 사장은 즉시 737 항공단의 수석 조종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33세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소그룹의 비상 요원들을 데리고 게릴라들이 가는 곳마다 납치된 비행기를 따라갔다. 기회가 닿는 대로, 그는 비행기와 조종사, 그리고 인질 석방을 위해 협상을 해야 했고 이 모든 일을 완수한 다음에는, 납치된 737기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본사로 몰고 가야 했다.

다행히도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임무는 그가 개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처리한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당시 그는 모르고 있었으나, 그것은 앞으로 올 더 막중한 임무의 전조였다.

도전에 직면하도록 준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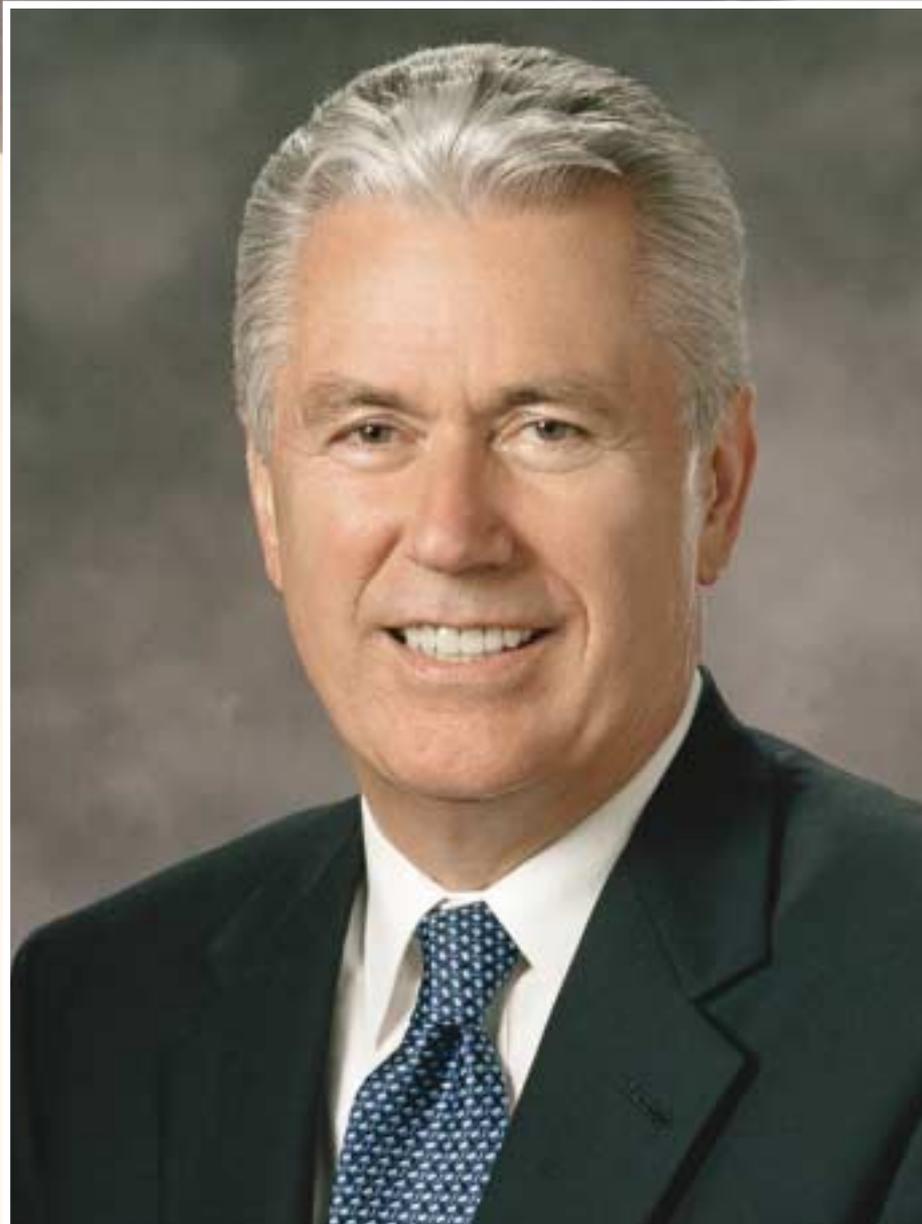
2004년 10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새로 부름 받은 디이터 프레드리히 우흐트도르프는 온 생애 동안 도전에 직면하고 책임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어 왔다. 1940년 11월 6일 체코슬로바키아 마흐리쉬오스트라우에서 출생한 그는 어느 곳을 가든 전쟁의 참화와 다른 사람들의 운명적 결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아야 했다. 그의 부친, 칼 알베르트 우흐트도르프는 독일 육군에 징집되자 바로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가족 중에서 막내인 어린 디이터는 다만 그의 부친이 어딘가 원치 않는 곳에 있다는 것과 그의 모친 힐데가르트 이 오펔트 우흐트도르프가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밖에 몰랐다.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잇단 승리와 동부 전선에서 스탈린 세력에 의한 불길한 진행 상황과 더불어,

힐데가르트 우흐트도르프는 가능하면 서부 전선 가까이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독일 츠비카우로 갔다. 다행히도 남편은 전쟁에서 살아 남아 츠비카우에서 가족들을 만났으나 그는





옆 쪽(위에서부터): 20세에 독일 공군에서 훈련 받을 당시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두 살(오른쪽에서 두 번째) 때 누이 크리스텔(오른쪽)과 두 친구와 함께. 열두 살 때, 좋아하는 책을 들고. 위: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나치와 공산주의 제도 모두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나치는 이미 패망했으나 독일의 전후 분단의 결과로서 공산주의는 그들의 삶을 통제했다. 칼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가족의 생활은 위태로웠다. 그래서 가족은 다시 7년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쓴 채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서독 프랑크푸르트로 떠났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난민이었습니다. ... 저는 폭격으로 파괴된

집에서 놀았으며, 눈에 보이는 패전의 결과를 목격하면서 끔찍한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조국이 많은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¹ 그들 가족은 어느 모로 보나 절망과 공포에 휩싸일 만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한때 다른 국제 분쟁이 있던 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암울한 결과 속에서도 밝은 희망은” 있었다.² 그것은 우흐트도르프 가족에게도 그랬다. 그들은 츠비카우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을 수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뒤 며칠 후, 할머니가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계셨는데, 그 때 가족이 없는 한 연로한 독신 자매님이 할머니를 성찬식에 초대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영을 느꼈고, 회원들의 친절함에 고양되었으며, 회복의 찬송가에 감화되었습니다. ... 영적으로 민감하셨던 할머니와, 잘 받아들이신 부모님, 그리고 용기

있게 다가와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 참조)고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구세주의 모범을 따른 백발의 연로한 독신 자매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³

그가 비행에 대한 애정을 키운 것은 십대 소년이었을 때였다. 14세에 그는 자전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기 시작했으며, 그 곳에서 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들을 바라보곤 했다. 때로,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친절한 직원 덕분에 비행기에 올라가 조종실을 들여다보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게 될 날이 오기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인정 받는 여객기인 보잉 747을 포함하여, 마침내는 열두 대의 대형 비행기를 다루는 일에 능숙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거의 알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소년으로 찾아간 바로 그 항공사의 문을 넘나드는, 가장 인정 받고 존경 받는 민간 조종사가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한 경력은 18세에 받은 공학 교육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그 후 그는 6 년간을 독일 공군에서 복무한 다음, 독일과 미국 정부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텍사스 주 빅스프링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 학교에 입학하여, 미 공군에서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의 선배 동료들은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그 곳에서 이룬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은 그 반에서 뛰어난 학생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모두가 바라는 사령관 트로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그 곳에서 그가 성취한 더 큰 업적은 교회의 지부를 위해 예배당을 짓도록 도운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문인이 되는 시기에 지냈던 가장 감미로운 추억이라고 말한다.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삶이 것처럼 힘차게 전진해 나갔듯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루프트한자 조직의 가장 중요하고 존중 받는 훈련소인 애리조나 주 굿이어에 있는 루프트한자 조종사 훈련 학교의 책임자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970년 29세에 디이터 우흐트도르프는 경력을 쌓기 전에는 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 루프트한자의 기장이 되었다. 비교적 빠른 승진으로 이 항공의 신동은 737 항공대의 매니저(1972년), 애리조나 훈련 학교 책임자(1975년), 수석 조종사 및 수석 운항 승무원(1980년) 및 비행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이 되었다.(1982년)

이렇듯 빠른 승진과 늘어나는 책임 속에서도, 디이터 우흐트도르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장으로 부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장으로, 마침내는 1994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해리어트 우흐트도르프

디이터에 관한 이야기에는 아내 해리어트를 빼놓을 수가 없다. 오랜 친구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해 온 하노 루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직업적인 성과와 교회에서 맡은 다양한 부름도 그의 성공을 말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큰 성공의 척도는 아내 해리어트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충실함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끊임없는 내조에서 나타나는 훌륭한 결혼 생활이에요.”

“그녀는 제 인생의 햇빛입니다.”라고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맞아요, 때로 그에겐 천둥 치는 폭풍도 있죠.”라면서 해리어트는 웃는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된다.

궁극적으로 해리어트 라이히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나중에는 그녀의 삶을 디이터 우흐트도르프와 사랑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껌 한 조각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해리어트가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을 때, 거리를 지나가던 잘생긴 미군이 친절하게도 그녀에게 껌 하나를 주었다. 그녀는 주저하면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 친절한 태도나 그 젊은 군인의 얼굴에서 본 즐거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약 10년쯤 지나서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라이히 가족의 문을 두드렸다. 엄마가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문을 열어 준 것은 해리어트였다. 선교사들의 얼굴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오래 전에 본 군인을 기억한 그녀는 엄마에게 간청했다. “엄마, 제발, 잠깐만요.”

선교사들은 특정 구절들을 강조하기 위해 표시를 한 몰몬경을 주고 갔다. 그 날 밤, 해리어트의 어머니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해리어트의 아버지는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해리어트는 이렇게 회상한다. “어머니가 무엇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 안색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작은 가족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끔찍한 전쟁의 여파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갓 미망인이 된 이 어머니는 창백한 모습으로 낙담해 있었으며,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불행하고 불투명한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몰몬경을 읽은 것에 대해 해리어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머니의 삶에 기쁨이 돌아온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돌아온 빛을 보고 어머니의 영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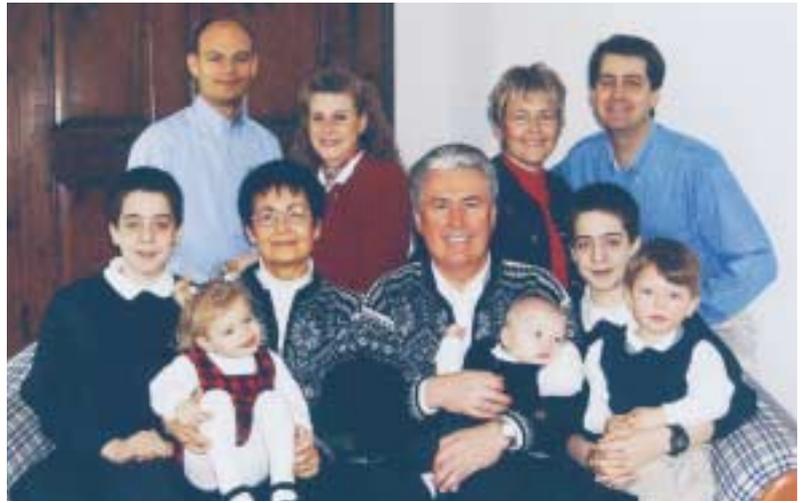


자리잡는 희망을 보았어요.”

신교사들이 돌아와서 물었다. “표시해 드린 구절들을 읽으셨나요?”

라이히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다 읽었어요. 들어오세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해리어트, 어머니, 그리고 언니는 4주 후에 침례를 받았다.



해리어트 우흐트도르프는 이렇게 말한다. “그 날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웃고 뛰놀며 가정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흐트도르프 가족의 가정 생활

현재 우흐트도르프 부부의 기혼 자녀들인, 구이도 우흐트도르프와 안트예 우흐트도르프 이반스는 유년 시절을 훌륭하게 보냈다고 인정한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늘 집에 계셨어요.”라고 안트예는 설명한다. 우흐트도르프 자녀들은 어머니 해리어트가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배웅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더욱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운항을 마치고 돌아오든, 사무실이나 교회에서 돌아오든 아무리 늦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결코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었다고 말한다. 안트예는 이렇게 계속한다.

“아버지는 무척 바쁘셨지만, 저희가 가장 높은 우선 순위였지요. 집에 계실 때는 언제나 엄마와 저희에게만 전념하셨어요. 물론 모든 것이 엄마에게는 흥미있는 일이었으며, 아빠는 일을 흥미있게 만드셨지요. 아빠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식료품 가게에 가는 일까지 모험처럼 만드셨어요. 부모님은 아이들이 꿈꾸는 가장 재미있는 가족 휴가에 저희를 데려가셨지요. 그래서 어린 저희들은 언제나 즐거우게 지냈답니다!”

그 모든 즐거움 속에서(자녀들과 어머니는 아버지이자 남편인 그가 아마추어 사진사로서 아프리카에서 항상 사자 곁에 너무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음), 안트예는 특별히 아버지와 보낸 조용한 시간들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즐기시는 소일거리인 별을 보거나, 겨울에 함께 썰매를 타거나, 혹은 현관에 앉아 있거나 할 때 언제나, 아버지는 항상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복음을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도록 늘 도와 주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구이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버지가 잔소리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늘 제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기억뿐이죠. 우리는 종종 저녁에 건너나 더 특별한 경우에는 산에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는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실 때 아버지를 따라 멀리 떨어진 와드나 지부를 방문하곤 했으며,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가정 복음

옆 쪽(위에서부터): 스위스 베른 성전 근처에서 힐데가르트와 칼 우흐트도르프, 사령관 트로피를 받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 조종사 시절. 왼쪽: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에 우흐트도르프 자매와 함께. 위: 우흐트도르프 가족. 아래: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자매.





교육 동반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협력 관계로, 아버지 대 아들로서 신권 및 제가 직면할 그 밖의 다른 책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따뜻함, 인내, 그리고 용기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일해 본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가 지닌 많은 특성에 대해 칭찬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즉 그의 온정이 넘치는 개성, 충성심과 인내,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보호하려는 그의 용기가 거듭해서 언급된다. 칠십인 정원회의 명예 회원인 딘 엘 라스 장로가 지역 회장이었을 때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고 나서 곧 그의 보좌로 봉사했다. 라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우리 지역에는 서부 및 중부 유럽이 속해 있었으며,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디이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시 그를 좋아했지만, 그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기를 잘 모르고, 여전히 전쟁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여행하고 감리하는 것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어디를 가든 매력적인 품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포용을 받기도 하고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 냈으며, 디이터가 겸손하고, 고무적이고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만큼 그가 찾아가는 교회 회원들도 너그럽고 친절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보좌로 봉사한 또다른 지역 회장은 현재 동유럽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였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디이터가 처음 우리와 함께 봉사했을 때 그는 직장에서 일을 보고 주말에만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부탁을 받는 대여섯 명 되는 총관리 역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일은,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루프트한자에서

맡고 있던 중요한 행정적인 책임이다 장거리 비행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활동적인 수석 조종사의 역할을 생각하면 과중한 임무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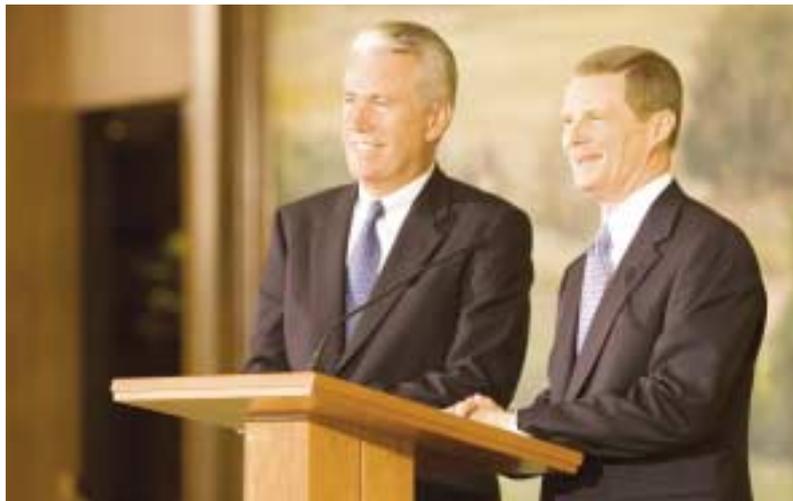
지역 회장단에서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함께 봉사한 칠십인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다른 교회 회원들에게 봉사하며 보여 주었던 고매함과 적절한 자부심, 그리고 그가 반대를 당했을 때 보여 준 용기를 기억한다. 그는 독일 정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들을 통제했을 때 일어난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기억한다. “이단”이라는 제목의 목록 첫 장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본으로 갈 가장 결단력 있고 명망 있는 독일 대표를 찾아야 했다. 그가 바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였다. 그 곳에서 있었던 그의 단호하고, 대담한 발표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논리 정연했으며 루프트한자에서 얻은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칭송을 받던 터라 그의 발표를 청취한 독일 관리들은 그들이 소홀히 처리했던 것에 대해 다소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말일성도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향후 그와 유사한 어떤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복음으로 강화됨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아들 구이도는 삶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종종 사용한 다음과 같은 독일 경구를 기억한다. “Man könnte sich darüber ärgern, aber man ist nicht verpflichtet dazu”, 그것을 대략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문제에 직면해 당황할 수는 있으나, 그래야 할 의무는 없다.” 디이터 우흐트도르프는 선택의지와 자제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권의 권세로, 어느 누구도 상황에 지배되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애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자유롭게 해 주는 항로를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용기, 인내, 낙천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자제할 경우 모든 일들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젊은 우흐트도르프 형제의 강도 높은 조종사 훈련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단독 비행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비행기 옆에는 조종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교관이 탄 다른 비행기가 있었다. 특별한 조종 훈련에서 그는 급경사로 하강하다가 착륙 직전에 평행을 유지하여 돌발적으로 활주로에 접근함으로써 비상 착륙을 해야 했다. 젊은 디이터가 방향 조종을 하고 급속도로 하강을 시도했을 때 갑자기 비행기의



조종간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항공 용어로 “stuck stick”(조종간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 된 것이었다. 그 결과로 비행기는 계속 회전하면서 뒤집힌 채 지상에 충돌하면서 착륙하게 될 것이었다. “탈출!” 하고 교관이 외쳤다. 그러나 총관리 직원들이 묘사했듯이 “황소 같은 용기”를 가진 그는 맨 끝에 있는 기어를 빼서 후진으로 넣어 본 뒤 다시 착륙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역시 기계는 꿈쩍도 안 했다. “탈출!” 엄한 명령이 다시 떨어졌다. 이번에는 교관의 음성에 진지한 염려가 깃들어 있었다.

비행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의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이 사람은 조종 장치와 씨름을 하다가 끝내 기어를 움직여 가장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비상 착륙 시의 처방대로 급강하를 시도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 걸어갔다.

“Man könnte sich darüber ärgern, aber man 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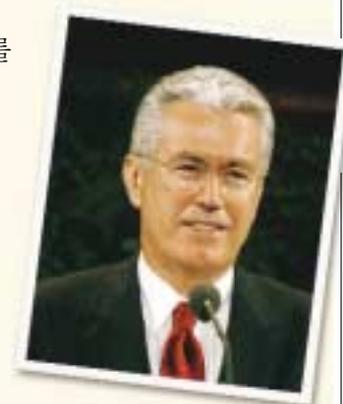
옆 쪽: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 청소년들과 함께. 맨 왼쪽: 1987년 독일에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구이도 우흐트도르프, 러셀 엠 넬슨 장로 및 조셉 비 워스린 장로와 함께. 왼쪽: 당시 독일 대통령이었던 요하네스 라우와 함께 가족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위: 기자 회견에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함께. 아래: 연차 대회에서 말하는 모습.

nicht verpflichtet dazu.” 이 경구와 같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자신이 부름 받은 거룩한 사도직에 대해 결단력 있고, 충실하게 봉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 바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다른 무수한 군대를 새로운 지평선으로 인도할 것이다.

■

주

1. “예언자의 음성으로 축복 받는 세계적인 교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쪽.
2. 대회 보고, 1982년 10월호.
3. “간증 기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5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힘으로 전진함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첫 번째 대회 말씀에서, 데이비드 앨런 베드나 장로는 경전에 있는 교리를 가르치고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전했다. 그의 말씀은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의 조용한 담대함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선행을 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약속했다. “주님의 힘을 입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¹

속죄로부터 오는 힘을 믿는 그의 신앙은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도록 부르신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으로 인해, 여러분은 그에게서 볼 수 있는 낙천적인 자세와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족 생활

현재는 장성하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드나 장로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한다. 아들 마이클은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아버지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늘 낙천적입니다. 일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될거야.’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힘들었을 때, 아버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아들인 에릭은 아버지의 모범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버지는 늘 예언자와 경전의 말씀과 같은, 믿을 만한 출처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단호하시지만 잘 경청하십니다. 아버지는 고무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의 대답을

듣고 다시 고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은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성전 추천서 접견과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지지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최근에 무엇을 읽었느냐?’ 그러한 고무적인 질문과 그와 비슷한 다른 질문들에서 얻은 교훈들은 아직도 에릭과 그의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3형제 중 막내인 제프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 시절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제게 목표를 정하고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프리는 또





옆 쪽(위에서부터): 2004년 11월 16일에 BYU-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자신의 독특한 표현 방식, 즉 경전을 들어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라고 권유하는 베드나 장로.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데이비드 베드나. 학생 시절. 위: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버지가 주님의 힘으로 인해 비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분은 속죄의 권세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²

베드나 자매는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엄하다고 하지만, 그는 부드럽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는 추진력이 있지만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는 충실하지만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는 큰 지도력을

갖고 있지만 따를 지혜도 있습니다.”

베드나 장로는 그의 아들들처럼, 일찍부터 가족 생활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는 1952년 6월 15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라비나 휘트니 베드나는 교회의 충실한 개척자 혈통의 후손이었다. 베드나 장로는 어머니와 그녀의 신앙을 “꾸준합니다.”라는 한 마디로 설명한다. 부친 앤소니 조지 베드나는 숙련된 연장 및 금형 제작자였다. 그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함께 꾸준히 교회에 참석하면서 교회 활동을 돕고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을 때 지원해 주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심지어 선교 지역에서도 베드나 장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아버지, 언제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때 교회에 가입하라.” 세월이 흘러, 베드나 장로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결혼을 한 후 집을 떠나 멀리 살고 있던 어느 수요일에, 아버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 “토요일에 뭘 할 거니? 이리(캘리포니아)로 와서 내게 침례를 주지 않겠니?” 베드나 장로는 아버지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하고 성임했다. 그는 그 전화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그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회복된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³

데이비드 베드나는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일 년이 안 되어 그는 선교부장의 보조로 부름 받았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복학하여 수잔 케이 로빈슨을 만났다. 그녀는 와이오밍 주 아프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녀의 가족은 교회에 헌신적이었으며, 지역 사회의 지도층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행장이었으며 감독으로 봉사했다. 데이비드와 수잔은 1975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베드나 장로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베드나 자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 아내 수잔은 유덕한 여인이며 의로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제 아내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순수함과 선함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⁴

교사와 지도자

베드나 자매는 1974년에 BYU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베드나 장로는 1976년에 학사 학위를, 1977년에 석사 학위를 역시 BYU에서 받았다. 그는 또한 1980년에 퍼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페이엠티빌에 있는 아칸소 대학에서 교직원이 되었다. 1982년에는 30세의 나이로 스테이크장단 보좌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감독, 아칸소 포트스미스 스테이크장, 아칸소 로저스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했으며, 그 후에 지역 대표로 그리고 나중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그는 이 많은 봉사를, 아내 수잔과 함께 아직 어린 세 아들을 키우며 아칸소 대학에서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는 동안 해냈다. 아칸소 대학교의 경영대학 학장인 도일 제트 윌리엄스는 베드나 장로가 교직원으로서, 또는 그가 얻은 명예라는 면에서 공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면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영향력 면에서 공헌한 바를 이렇게 설명한다. “데이비드 베드나는 우리 지도자 팀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에 대한 열의와 동료들 돕고자 하는 열정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토론에 이성과 동정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모범으로 동료와 학생들을 고무시켜 주었으며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윌리엄스 학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보았으며, 그 힘은 또한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는 아칸소 스테이크에서 베드나 부장의 보좌로 봉사하는 제리 아브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아브람 형제는 그가 받은 인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매달 평균 3,200킬로미터를 함께 여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를 매우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불렀으며, 제 딸아이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날 때 그 아이를 성별했습니다. 그는 그 딸아이의 쌍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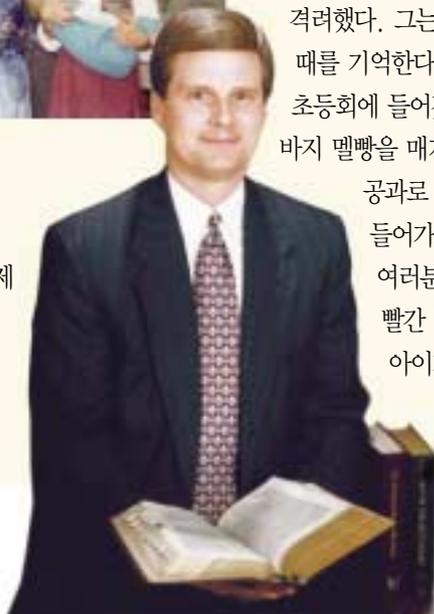
자매의 장례식에서 힘차게 그러나 연민의 정을 갖고 말씀했습니다. 그에게는 17세 때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끔찍한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민감한 부분이었지만 베드나 장로가 잘 감당해 내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일지에 그분이 내가 만난 어느 누구보다 영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브람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아칸소의 이 지역에 강력한 말일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나 형제의 노력과 근면과 지도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의 특징 중 하나는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들에게 모든 모임에 경전을 지참하도록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전을 지참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좀더 잘하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드나 자신이 경전에 의지하고 그 중요성을 가르친 것은 그의 신권 봉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기억한다. “선교 사업을 하기 전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거룩한 어셈블리 룸으로 갔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약 300명의 선교사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 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흰 양복에, 흰 경전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경전에서 답해 주시거나,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분처럼 경전에 대해 많이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방법대로, 가르칠 때 경전을 사용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의 모든 경전 공부의 근원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힘써 격려했다. 그는 1987년 아칸소 페이엠티빌에서 감독으로 있던 때를 기억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느 일요일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빨간 바지 멜빵을 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종의 실물 공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상의를 벗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감독이 이 빨간 멜빵을 땀습니다. 경전은 이 빨간 멜빵과 어떻게 같을까요? 그러자 한 어린 남자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은 감독님의 멜빵이 바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예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와드에 있는 어린 남자 아이들은 빨간 멜빵을 하고 어린 여자 아이들은 머리에 빨간 리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친은 연장 및 금형 제작자였으며, 손에 연장을 들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인 저에게 우리의 연장은 경전이며, 우리는 늘 모임에 경전을 지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장이 되면서 우리가 경전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옆 쪽(위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1979년 아버지 침례식에서 부모님, 아내 수잔, 그리고 어린 두 아들 마이클과 에릭과 함께. 아칸소 로저스 스테이크장으로서. 왼쪽: 테트스에서 가진 가족 여행. 위: 베드나 가족. 아래: 손녀인 에밀리와 함께.



신앙을 붙들어 주는지 상기시키도록 그것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나 장로가 아칸소를 떠난 오랜 후에, 한 사람이 아이다호에 있는 한 시골 스테이크에 신권 접견을 하러 갔다. 그는 낡은 경전을 들고 있었다. 그는 접견을 행하던 총관리 역원이 자신이 경전을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것을 눈치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경전을 치켜 들고 말했다. “저는 젊었을 때 아칸소에 있는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베드나 부장님이 스테이크장으로 계셨죠. 저는 경전을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합니다.”

변화의 시기를 위한 대학 확장

1997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는 아이다호 리스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 대학은 학생 수가 8,500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전문 대학이었다. 교수 및 직원들과 가진 첫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전에 대학 확장 일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이 일을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이 최소한 확장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⁵

그는 대학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결코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매학기 강의실에서 종교를 가르쳤다. 그와 베드나 자매는 학생들을 가정의 밤에 초대했으며, 학생들은 그 곳에서 경전과 영감에 찬 질문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렉스버그에 있는 동안 약 35,000명의 학생들이 베드나 부부와 갖는 그러한 가정의 밤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2000년에 베드나 학장은 리스 대학이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라고 명명된 4년제 대학으로 승격 결정되었음을 알았다. 리스 대학은 2001년 8월 10일에 공식적으로 BYU-아이다호가 되었다. 채 3년도 안 되는 2004년 여름에 그 대학은 대학 신입장을 받았다는 것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 뜻깊은 교육 단체의 업적은 학교의 체제가 바뀌리라는 예고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되었다.

이제 4년제 대학 총장이 된 베드나 총장은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주도해 나갔을 뿐 아니라, 전문대는 독특한 교육적 실험을 위해 계획된 대학이 되었다. 학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쌓는 한편, 혁신적인 교육의 장이 되어야 했다.

가을에 입학하여 봄에 졸업하는 전통적인 학년도 체제가 교체되었다. 학생들은 연중 어느





학기에라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의도는 캠퍼스를 연중 최대한으로 채우는 것으로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 수가 있었다. 연중 계속되는 스케줄은 학생들이 정기적인 여름 방학이 아닌 다른 때에도 인턴 수업을 위해 캠퍼스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었다.

교수들에게는 직급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수는 전통적인 교수 지위나 특권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대학 간의 체육 대회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사교, 지도력, 예술 및 체육 행사에 참여하고 경쟁하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에게 허용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새로운 과정을 개발하고, 교수를 임용하고, 확장된 학교 공간을 계획하고 건축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했다. 베드나 총장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직원과 교수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커다란, 때로는 어려운 조정이 요구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참여해야 했다.

베드나 총장은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헝클리 대관장님께서 리스 대학이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이다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보다 더 열렬하고 진지하게 제 무릎을 꿇게 한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가 있기 전날 저녁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학장님, 두렵습니까? 그 때의 대답을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오직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나 총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BYU-아이이다호에 대한 헝클리 대관장님의 선견지명이 단지 2년제나 4년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서열이나 운동 경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칭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발표는 신앙, 즉

미래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생각할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주어졌으며,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학교 전체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입니다.”

학생 생활 부학장으로서 베드나 총장 측근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BYU-아이이다호의 임시 총장인 로버트 윌키는 베드나 총장이 어떻게 변화를 주도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몇몇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를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와 이사진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적절한 때에 행동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임원들에게 제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빛나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변화를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위대한 변화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⁶ 온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지지기반을 쌓았습니다. 계획의 일부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충분히 참여시켰으며 많은 경우 그 학생들로 인해 교수와 직원들은 마음을 바꾸게 되어, 그들은 BYU-아이이다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적으로나 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빨리 신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BYU-아이이다호가 어떻게 왕국 봉사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교회가 더 훌륭하게 변화한다는 사실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러한 변화가, 기회를 전혀 얻을 수 없었던 학생들을 학교에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경험을 영적인 통찰의 기회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나 장로는 기꺼이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며, 모든 사람이 귀중한 통찰력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은 비서인 베티 올드햄이었다. 그녀는 베드나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감독하고 강조점을 제시해 주는 반면에,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세부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위자로서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으며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것과 180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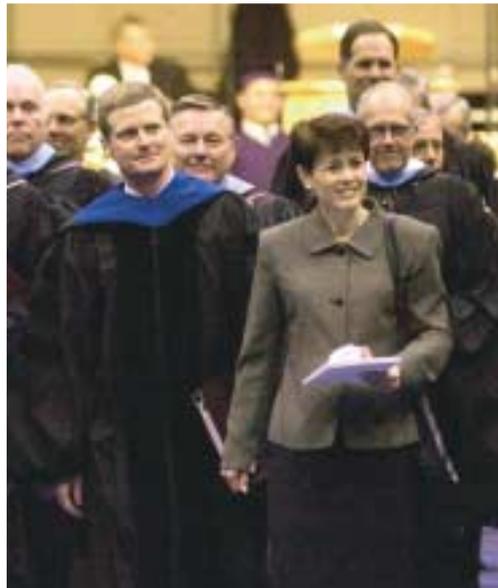
사진 촬영: 존하트, CHURCH NEWS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의회의 토론 개념은 캠퍼스 전체에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늘 제 의견이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러한 지도력을 통해 아칸소에서의 가족들은 단합되었으며 교회는 더욱 탄탄하게 세워졌다. 전문 대학이 훌륭한 4년제 대학이 되었으며 그 곳에서 공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높여 주는 베드나 장로의 능력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든 행하고자 하는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에서 온다. 그는 구세주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도, 경전 공부 및 개인적인 시험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그는 사도직에 대한 부름에 응하면서 습관이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은 그의 첫번째 연차 대회 말씀의 끝 부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저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 지도자들께서 제게



옆 쪽: 리스 대학교 서점에서 학생을 도움. 맨 왼쪽: 베드나 자매, 베드나 총장, 그리고 그의 아들 마이클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나 총장의 며느리인 샤토틀 자매와 악수를 하는 핑클리 대관장. 왼쪽: 리스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베드나 부부 내외. 위: 기자 회견에서 함께한 베드나 장로 부부와 우흐트도르프 장로 부부. 아래: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는 모습.

가기를 바라시는 곳은 어디든 가고, 그분들이 제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힘과 그분의 자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아 모든 일들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⁷ ■

주

1. “주의 힘을 입어”,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7쪽.
2. Zach Gibson, “Elder Bednar’s Son Shares Thoughts, Memories”, *Daily Universe*에서 인용, 2004년 10월 26일, 6쪽.
3. Steve Moser, “I’m a Teacher Who Is Now a College President”, *Summit*, 1997년, 9~10쪽 참조.
4.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8쪽.
5. *Summit*에서 인용, 1997년, 9쪽.
6. 니파이서서 28:30 참조.
7.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8쪽.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첫번째 시현과 복음의 회복이 있기 전에 세상은 준비되어야 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회복되지 않았다.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밭이 준비될 필요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지상에 적절한 영양분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

대배도에 이어 수백 년 동안(“그리스도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리아호나, 2005년 2월호, 12쪽 참조), 주님은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지상이 준비되도록 하셨다. 그분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를 정하셨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14세기가 르네상스와 더불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옛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과학, 미술, 문학 및 다른 많은 학문의 분야가 유럽에서 번창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관념, 탐구 및 발명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인쇄 기술로 성경에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성경

르네상스 이전에는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드는 속도도 느렸고, 값도 비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직 부유하거나, 교육 받은 사람들과 교회의 성직자들만이 경전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다.

1450년경에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성경의 대량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 출판은 성경 값을 저렴하게 했다. 가격이 싸고 새롭게 번역된 경전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영어 성경은 흄정역(킹 제임스 판)성경이다. 약 7년 동안 50명이 넘는 학자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킹 제임스 판 성경을 준비했다. 그것은 1611년에 출판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1820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 참조)는 영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을 접할 수 없던 수백년이 지난 후에, 누구나, 심지어 14살 된 시골 소년도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인양으로부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그림, 국왕 도나과, 그림 및 사진: 마틴 톨라가 그의 종교적 신조를 발표하고 있음. 킹 제임스 성경 사진: 찰스 로프, 국왕 도나과, 그림 및 사진: 마틴 톨라가 그의 종교적 신조를 발표하고 있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흠정역 성경이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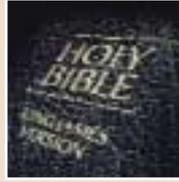
메이플라워 호가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았다.



1492년



1517년



1611년



1620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스위스의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의 교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종교 개혁가로 불렸던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옳지 않은 여러 가지 관행들을 보았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으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관행들을 변경하기를 원했다. 1517년에 루터는 교회의 관행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95개의 신조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했으며, 그것을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 문에 걸어 놓았다. 이 행동은 신교도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루터는 이러한 항의 행동으로 가톨릭 교회로부터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기독교를 개선하려고 했다.

파문 당했으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지속되었다. 그는 오랫동안의 노력과 독일어판 성경 번역을 통해 다른 종교 개혁가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그리고 것처럼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마틴 루터

1483년에 출생한 마틴 루터는 최초의 종교 개혁가는 아니었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가의 한 사람이다. 마틴은 처음부터 종교 학자는 아니었다. 그의 부친은 그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는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성경을 매우 깊이 연구했으며 사람이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앙에 의해서 구원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루터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이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경전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로 하여금 부패되었다고 생각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게 했다. 특별히 그가 분노한 것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용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면죄부의 판매였다.

마틴 루터는 연구 끝에 95개의 신조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으며, 그것은 교회의 관행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의 노력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미래의 종교 개혁가들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요셉 스미스가 살던
곳에서 종교 부흥이
시작되었다.



1700년대 후반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 구하”기로
했다.



1820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스러운 숲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었다.



1830년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서 마침내 이 말일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라는 열네 살 된 소년의 준비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충만한 복음을 이 지상에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의 모든 부분이었다. ■

적절한 시기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준비된 땅에서 꽃을 피울 가능성을 모두 갖춘 후에야 일어날 수 있었다. 르네상스, 신교의 종교 개혁, 자유 국가로서 미국의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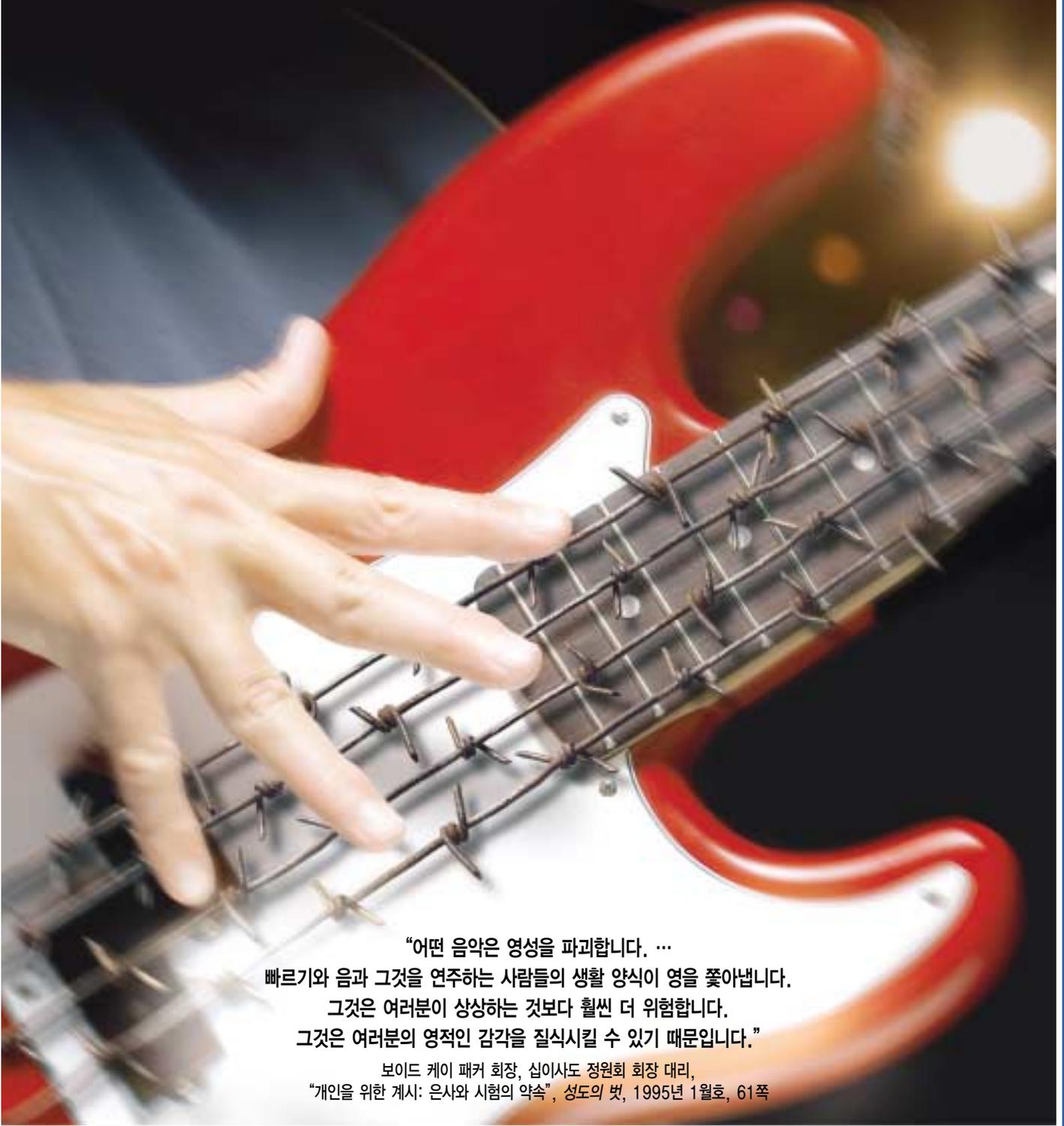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

주님은 처음 13개 주에 있던 사람들에게 헌법을 작성하고 정부를 구성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교리와 성약 101편 8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속하였느니라.”

월포드 우드럽(1807~1898년) 대관장은 미합중국 건립을 도운 훌륭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미국 정부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영들이었으며 ... 주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in Conference Report, 1898년 4월, 89쪽)



어떤 음악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



“어떤 음악은 영성을 파괴합니다. ...
빠르기와 음과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영을 쫓아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의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61쪽

상호부조회 조직 안에서 기뻐함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 상호부조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반차를 통해, 즉 조직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넘겨 드립니다. 이 상호부조회는 기뻐할 것입니다. … 여러분이 특권에 맞게 생활한다면, 천사라도 여러분의 교제를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3월~1844년 3월, 38, 40쪽,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교회의 회복에서 상호부조회의 신성한 역할은 무엇인가?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는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성약을 소중히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스러운 성약을 소중히 할 때 우리는 교회와 특정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이 일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리야호나, 2004년 3월호, 30쪽)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년)
대관장: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와 같은 훌륭한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 분명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훌륭한 조직이 없었다면 완전하게 조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The Relief Society Organized by Revelation(계시에 의해 조직된 상호부조회)”, Relief Society Magazine, 1965년 1월, 4, 6쪽)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에 속한 것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년)
대관장: “이 조직은 여자와 남자의 영혼의 구원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

“… 여러분은 그 일을 하도록 … 가장 위대하게 되고, 가장 순결하고, 또 권리에 대해 가장 헌신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예언자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고, 부름에 속한 모든 것과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상속 받아야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의 은사를 얻는 것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84~185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의지를 잃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다 하십시오. 신앙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결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리야호나, 2003년 11월호, 115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그저 공과 시간에 참석한다는 것보다 상호부조회에 속한다는 의식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잡혀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상호부조회에 간다는 생각에서 상호부조회에 속한다는 쪽으로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상호부조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3쪽) ■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18 42년 3월 17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 개종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한 나부에 있던 초기 자매들은 새로운 날이 밝아 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모임에서 그들은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찬송가 32장)를 불렀다.

역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봉사 기간과 그 당시 봉사했던 대관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 연대표는 조직의 기념비적이며 뜻깊은 일부 교회 및 역사적인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 오늘날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도 우리의 성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자선을 행하고, 가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 여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에서 기쁨을 찾게 된다.

*이 찬송가는 1842년 3월 17일 상호부조회 회의록에서 “오라, 우리 함께 다 즐기세”로 알려졌다. 원래의 찬송가와 현재의 찬송가에서는 모두 그 제목이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이다.

1842~1844년

엠마 스미스



Emma Smith

“우리는 비범한 일을 할 것입니다. ... 우리는 비범한 일과 도움을 위한 긴박한 요청을 기대합니다.”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3월~1844년 3월, 1842년 3월 17일자 기록, 12쪽,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영혼을 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예언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있다면, 이 상호부조회에 주겠습니다.” 그는 금화 5달러를 엠마 스미스에게 주었다.

☪ 요셉 스미스 순교, 1844년.

☪ 최초로 일반인들을 위한 전보가 송신됨, 1844년.

1866~1887년

엘리자 알 스노우



Eliza A. Snow

“어떤 자매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Woman's Exponent, 1873년 9월 15일, 62쪽)

☪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양잠과 그 외의 다른 일에 참여함.

☪ 유타 주에 있는 최초의 성전인 세인트 조지 성전 완공, 1877년; 상호부조회, 상호 향상회 및 초등학교를 위해 조직된 본부 회장단들 조직, 1880년.

☪ 전화 발명, 1876년; 전구 발명, 1879년.



1888~1901년

지나 디 에이치 영



Lina D. Young

“우리가 시온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참된 위치를 알고 영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Woman's Exponent, 1889년 4월 15일, 173쪽)

- 미국에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전국적인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지지함.
- 1892년 10월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들로 구성된 최초의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가 조직됨.
- Ⓜ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 1893년; 유타가 주로 승격됨, 1896년; 최초의 독신 자매 선교사들이 부름 받음, 1898년.
- 🌐 최초의 활동 사진이 대중에게 상영됨, 1896년.

1901~1910년

밋세바 더블류 스미스



Matseba W. Smith

“살아 있는 동안 중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식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Woman's Exponent, 1906년 1월, 41쪽)

- 상호부조회는 결혼, 태아 관리 및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어머니 공과를 가르치는 학습 과정을 시작함.
- 상호부조회에서 국내 및 국제 구호를 위해 의복, 침구 및 밀을 보냄.
- Ⓜ 교회가 부채에서 벗어남, 1907년.
- 🌐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시험 비행함, 1903년; 헨리 포드가 T 모델의 자동차를 소개함, 1908년.

1910~1921년

에밀린 비 웰즈



Emmeline B. Wells

“저는 자매들이 경전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 경전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책이 되게 하십시오.”

(Relief Society Magazine, 1919년 8월호, 439쪽)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가 상호부조회의 모토가 됨.
- Ⓜ Relief Society Magazine (상호부조회 잡지)가 처음으로 출판됨, 1914년; 미국 정부가 상호부조회로부터 200,000부셀(약 720만 리터) 이상의 밀을 구매함, 1918년.
- 🌐 제1차 세계 대전, 1914~1918년; 파나마 운하 완공, 1914년;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됨, 1920년.

1921~1928년

클러리사 에스 윌리엄스



Clarissa S. Williams

“우리는 다른 어느 시대에 살던 여인들도 받지 못했던 훌륭한 축복을 받았으며,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ief Society Magazine, 1921년 12월호, 696쪽)

- 월례 방문 교육 메시지가 처음으로 Relief Society Magazine (상호부조회 잡지)에 실림.
- 가족을 위한 건강 및 교육 향상이 강조됨.
- 연차 대회가 처음으로 라디오로 방송됨, 1924년.
-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 비행함, 1927년.

1928~1939년

루이스 와이 로비슨



Louise G. Robison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Belle S. Spafford Oral History에서 인용,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 상호부조회가 교회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시행을 돕기 위해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일함.
- 스테이크 및 와드 상호부조회 합창단인 노래하는 어머니가 조직됨.
- 교회의 백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됨, 1928년; 데저릿 인터스트리를 시작함, 1938년; 교회 100주년 행사, 1930년.
- 경제 공황, 1929~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1939~1945년.

1940~1945년

에미 브라운 라이먼



Amy Brown Lyman

“상호부조회의 초창기 회원들은 ... 그들이 사랑하는 조직이 얼마나 위대하게 될지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Relief Society in Action Today”, Relief Society Magazine, 1944년 3월호, 139쪽)

- 상호부조회 복지 사업이 전시의 필요 사항에 대응하는 신권 조직을 도울 정도로 확장됨.
- 방문 교사들의 초점이 가족에 대한 봉사과 신권 지도자들이 가족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로 확산됨.
- 전시의 제한 조치가 교회 활동을 감축시킴.
-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함, 1941년.



1945~1974년

벨 에스 스페포드



Belle S. Spafford

“이 상호부조회 내에는 모든 국적을 가진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 주면서 활력을 주는 위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Gospel, the Soul of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1949년 3월호, 148쪽)

● 교회 회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호부조회가 국제적인 조직이 됨.

■ 교회 회원이 백만 명에 달함, 1947년; 연차 대회 방송이 재개됨, 1949년.

● 한국 전쟁, 1950~1953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짐, 1961년.

1974~1984년

바바라 비 스미스



Barbara B. Smith

“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인 친구들과 가운데서, 확대 가족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봉사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도의 빛, 1984년 8월호, 12쪽)

● 여성의 생애에 대한 많은 국면을 보여 주는 동상들과 더불어, 여성에게 바치는 나무 기념비가 헌납됨.

■ 신권에 대한 계시, 1978년; 새로 조정된 모임 계획표가 시행됨, 1980년.

● 개인 컴퓨터가 소개됨, 1981년.

1984~1990년

바바라 더블류 윈더



Barbara W. Winder

“저는 교회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각 개인의 가치를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신권 소유자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Ensign, 1984년 5월호, 59쪽)

● 경전을 근거로 한 새로운 공과가 소개되어 복음 교리 학습 과정과 관련됨.

■ 교회 가족 역사 도서관이 헌납됨, 1985년.

●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 1989년.



1990~1997년

엘레인 엘 잭



Elaine El Jack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주고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을 고무시키고 고취시킬 것입니다.”

(“A Small Stone”, Ensign, 1997년 5월호, 75쪽)

- 150주년 방송이 5개 대륙에 연결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자매의 수가 3백 2십만 명에 달함.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발표됨, 1995년; 교회의 다수 회원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함, 1996년.
- 소련이 붕괴됨, 1991년; 대중 인터넷 시대가 시작됨, 1993년.

1997~2002년

메리 엘런 더블류 스무트



Mary Ellen Smet

“여성의 표상이 되며 담대히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라, 주님의 빛 안에 걸어가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09쪽)

-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이 가사 모임을 대체함.
- 방문 교육 메시지 양식이 참조 성구와 교회 지도자들의 인용문으로 구성됨.
- 교회 회원이 천만 명에 이룸, 1997년; 소규모 성전이 발표됨, 1997년; 컨퍼런스 센터가 헌납됨, 2000년.
-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시티와 워싱턴 디시를 공격함, 2001년.

2002년~

보니 디 파킨



Bonnie D. Parkin

“만일 제가 이 교회의 모든 [여성]을 위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들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5쪽)

- 청년에서 상호부조회로 이어지는 연결이 강조됨.
- 나부 일리노이 성전 헌납, 2002년; 세 분의 사도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음, 2002, 2004년.
- 캐시니 후이젠스 우주선이 토성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함, 2004년.

어려움을 이겨내는 제사

마이클 칩맨

뉴

욕시티의 생활은 언제나 힘들지만,
뉴욕 뉴욕 스테이크 인우드 제1와드의
17살 된 제사인 레우리 페레스는

그러한 생활을 기대하는 것 같다. 피아노 경연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새벽반 세미나에 참석하고,
학교 공부하고, 스테이크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 대회를
준비하고, 보이스카우트 일을 도우면서 그는 집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홀어머니인 비엔베니다(아래 레우리와 함께)를 돕는다.

레우리는 제사 정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저는 교회에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여
일요일에 그들에게 성찬을 가져다줍니다. 저는 또한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도 합니다.”라고 레우리는 말한다.

금년도 제사 정원회 공과는 선교사 준비에 관한 것이며,
레우리는 선교사 목표에 중점을 두도록 도움을 주는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프로그램, 고문인
조나단 호레이 형제, 마크 존슨 감독을 믿고 있다. “저는 일본으로
가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곳 같아요.”라고 레우리는 말한다.

어머니인 비엔베니다는 이렇게 말한다. “레우리가 제사
정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제 삶에 큰 축복이 됩니다. 그
애는 교회를 사랑하며 매우 영적이에요. 저는 그 애에게 모범을
보고 싶지만, 그 아이가 제게 많은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엔베니다는 1974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7년 후에 칩맨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 레우리는
뉴욕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열 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다.
일곱 살에 피아노 교습을 받기 시작했으며, 훌륭한 어린
피아니스트로 발전해 가면서 몇 차례의 경연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레우리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대학에 가기를 바라며, 그
곳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음악을 공부할 계획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페레스 가족의 비결은
무엇일까? “계명을 아는 일은 삶에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군데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홀어머니로서, 저는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레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일은 제게 헤아릴 수
없는 행복감을 줍니다.”라고 비엔베니다는 말한다. ■

마이클 칩맨은 뉴욕 뉴욕 스테이크 제3와드 회원이다.



제사 정원회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 시리즈의
세 번째 부분. 제사 정원회에 대한 감리 감독단의 말씀.

제사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며, 정원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위
가운데), 감리 감독:** 청소년이 열여섯
살이 되면 많은 외부의 영향력이 그의 삶에
미치게 됩니다. 데이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는 차를
몰고 많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당면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자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의 주의를 끌 때 그는
영적인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그의 삶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오락이나 게임이
즐거움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즐거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쁨은 옳은 일을 하고, 침례와 성임에 참여할 때 올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올바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봉사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위 왼쪽),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이 시기는
많은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도덕적인 환경의 영향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제사들이 표준을
지키는 청년들에 의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제사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까?

**키스 비 맥멀린 감독(위 오른쪽),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우리는
제사들을 과소 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들은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집사, 교사 및 다른 제사들을 성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나 이러한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또한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교리와 성약 20:46)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도록
돕는 일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들은 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의무에 참여할 충분한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의 제사들에게 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말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만한 기회를 줄
경우, 그들은 즉시 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권유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6세 된 소년들이 계시된 제사의
의무(교리와 성약 20:46~52 참조)를 자신의 삶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이며 커다란 기회입니다.

어떻게 정원회가 제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에즐리 감독: 신권 지도자들은 제사들이 선교 사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들은
제사들이 성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제사들은
선교사로 나갈 때 맺게 될 성약에 대해 준비하고, 또한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론 신권은 이러한 일로



인도하는 예비 신권입니다.

청남이 참으로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정한 계명들을 지킵니다. 제가 정원회 지도자라면, 정원회에 속한 제사들이 귀환 선교사와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교류하게 하겠습니다.

제사 정원회에서 감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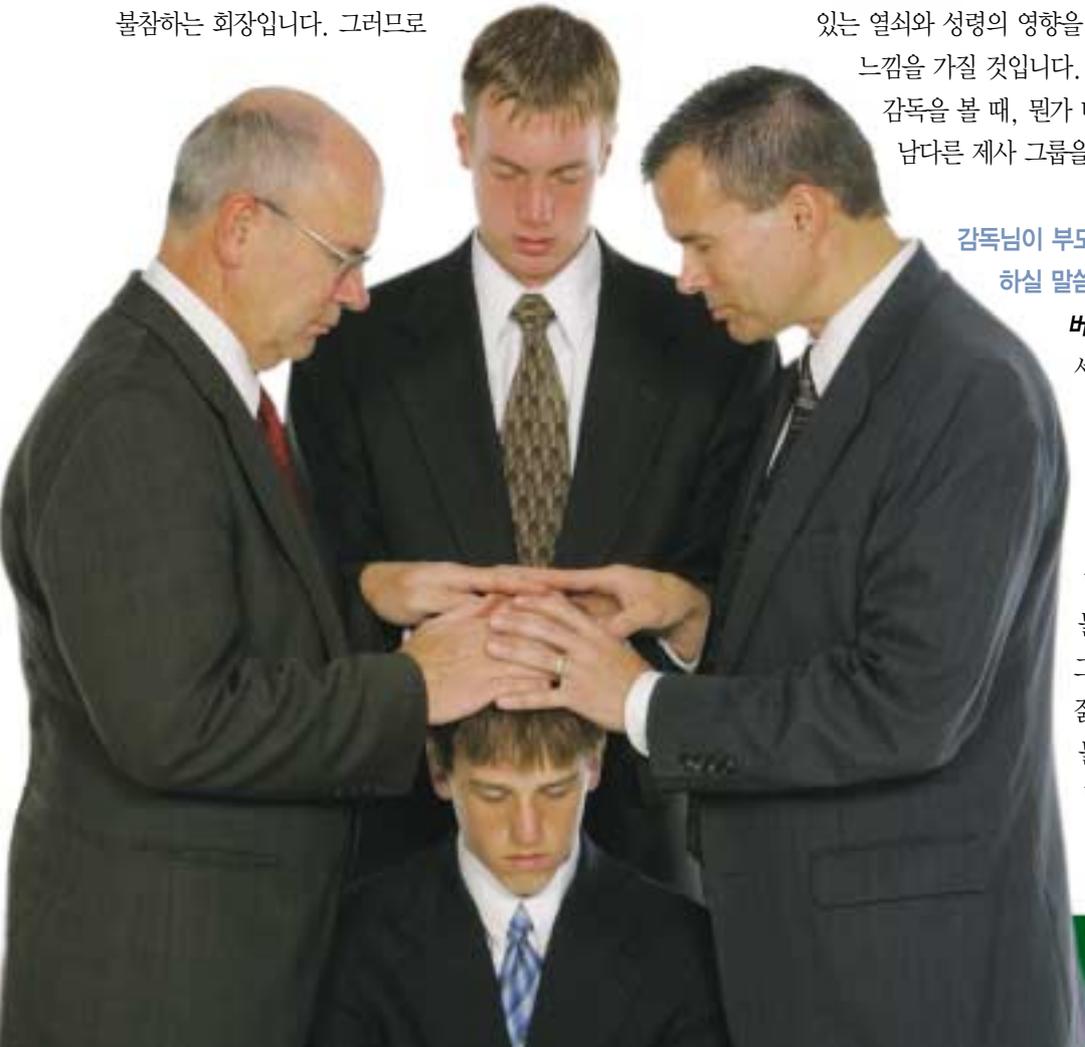
버튼 감독: 감독은 정원회의 회장입니다. 신성하게 회복된 신권의 열쇠가 감독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그 열쇠들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독이 정원회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는 제사 정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원회에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와드를 이끌어야 하는 임무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는 불참하는 회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열쇠들이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맥컬린 감독: 감독이 참석하지 않는 제사 정원회 모임은 특정 연령층의 청소년을 위한 공과 시간이나 같습니다. 감독이 갖고 있는 열쇠와 성령의 영향을 통해 감독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원회에 참여하는 감독을 볼 때, 뭔가 다른 정원회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다른 제사 그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이 부모나 제사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버튼 감독: 우리는 이 세대가 고귀한 세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영입니다. 그들이 이 말일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존되어 왔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강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젊은이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기회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강합니까? 그들은 재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마빈 케이 가드너
교회 잡지

전 쟁. 전쟁이 날 것이라는 소문. 폭력. 부패. 공포. 이런 말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세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평화. 안전. 자유. 친절. 이런 말들은 심지어는 가장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가능한 상황을 제시해 준다.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두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살고 또 처지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모범을 통해서 보여 준다. 회원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립해 가고 있고 조국을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쟁”이 핑계가 될 수 없음

수십 년 동안 콜롬비아의 마약 집단, 게릴라와의 전투, 납치, 기타 폭력 범죄에 관한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전세계적인 뉴스 기사로 방송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콜롬비아인들은 그것을 달리 바라본다. 그 난리를 어떻게 견디었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무슨 전쟁 말씀하는 거죠?”라고 반문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조국이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저울질 된다는 점에 서글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곳에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현 상황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 시골 지역이 특별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은 붐비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거리에서 무장한 병사들을 보고 또 철저한 안전 검색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교회에 대해서도 산발적인 위협과 직접적인 폭력 사건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오래 전에 일어났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상자가 없이 단지 사소한 물적 피해밖에 없었다. 회원들은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예배당을 수리하며, 계속해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낙관적인 위대한 정신으로 행하고 있다.

“이 곳에서 우리는 몇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남미 북지역 회장인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교회 회원들은 전쟁을 핑계삼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물질적인 자립의 발전

“우리의 과제 중 하나는 많은 회원들이 처해 있는 심각한 빈곤입니다.”라고 콜롬비아 보고타 케네디 스테이크장인 파비안 사아베드라 형제는 말한다. 콜롬비아에서 교회는 회원들이 물질적으로 자립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장려.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위대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 가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대학에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있고,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 예는 루이스 프리에토인데, 그는 보고타의 빈민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는 1972년에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라 많은 희생을 했다. 현재 루이스는 성공한 변호사이다.

거의 400명에 가까운 콜롬비아의 젊은이들이 영구 교육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마친 직후에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아이는 가족을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저희도 아들의 학업을 도와

로베르토 루비오 성전장과 아내인 레오노르는 콜롬비아 원주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위에 전쟁과 죄악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지닐 수 있습니다.”

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육 기금을 신청했고 지금 기술 교육 과정에서 두 학기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 그의 학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인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영구 교육 기금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실업자를 도움.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부채를 청산하고, 십일조를 내고 서로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나누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회원들에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지 말고 콜롬비아에 남아서 교회의 성장을 도울 것을 권고한다.

코스타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신권 지도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우리는 즉시 그와 상의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나 지나기 전에 지역의 취업 전문가 및 그 밖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앉아 여러 방편들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는 나가서 어떤 것을 성취해야겠다는 희망과 동기를 가지고 자리를 뜬다.” 이 지도자들은 실업 상태가 된 다른 회원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

채소밭을 기쁨. 보고타 케네디 스테이크 센터의 뒤편에는 두 개의 작은 채소밭이 있는데, 각각의 크기는 1평방 미터로 도시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파비안 사아베드라 스테이크장과 아내인 로사는 조그만 농작물을 자랑스럽게 보여 준다. 사아베드라 자매는 땅에서 무 하나를 뽑아 올리며 말한다. “우리는 이 작은 밭에 무, 당근, 토마토, 감자, 양배추, 완두콩, 상추, 약초를 키워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밖에 심을 수 없는 아주 조그만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리를 배우고 그에 대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아베드라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말한다. “집회소에 있는 이런 채소밭의 목적은 작은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채소를 심고 그들의 수확의 축복에 관해 간증합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마당이나 뜰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심은 항아리 하나가 우리의 채소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가에 놓았는데 토마토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포파안에서 알폰소 테노리오의 의료 학술지를 출판하는



평화가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전 헌납 기도를 통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은혜가 이 나라 콜롬비아에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종들에 대한 친절 때문에 이 백성과 이 정부가 축복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리고 싸움의 소음이 잠잠해지기를 기원하나이다. 당신의 사업이 방해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평화의 메시지를 지닌 당신의 종들이 일하면서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십시오” (“Thy People Will Enter into Covenants with Thee”, *Church News*, 1999년 5월 1일, 10쪽)

의사이다. 그 일 외에도 그는 아내인 루시아와 함께 부친의 집 뒤에 있는 넓은 채소밭에서 일한다. 그들은 이모의 채소밭 일을 도와 준다. 그들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한 천주교 학교에 마련한 채소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한다. 또한 시 관계자 및 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가정 채소밭을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 테노리오의 노력을 통해 포파안의 많은 가정에서 채소밭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알폰소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친구들과 이웃들이 자립하여 어려운 시기에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과 물의 저장. 집이 아무리

작더라도 회원들은 식품 저장을 위한 장소를 찾아낸다. 보고타에 있는 가르멘 메리살데의 집의, 마루에 닿을 정도로 천으로 덮여 있는 전화 탁자는 건조 포장된 식품이 가득 들어 있는 말 그대로 창고이다.

회원들은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한 줍일지라도 아주 조금의 쌀과 다른 기본 식품을 비축할 것을 권고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돈이 별로 없더라도 조금씩 비축을 하고 있다. 충분한 양이 모였을 때 그들은 저장을 위해 그것을 건조 포장을 한다. 스테이크에 건조 포장 기계가 구비되어 있어 돌아가면서 각 와드로 보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한다. 사아베드라 스테이크장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한 줍씩 모은 쌀을 처음 건조 포장을 할 때 그들의 눈에 맺히는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눔. 이보네 팔라시오 형제의 주방 찬장에 있는 식품의 일부는 그 집 가족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 회장단은 비상 시에 나누기 위해 식품을 저장하라고 회원들에게 권고한다. 코스타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회원들의 가정에 있는 주님의 창고”라고 부릅니다. 감독은 기증할 수 있는 일정량의 쌀이나 기타 기본 식품을 항상 갖고 있을 것을 가족들에게 권고합니다. 나중에 궁핍한 가족을 위해 감독이 요청할 때, 그들은 그것을 기증하고 다시 사서 보충합니다.”

이 방법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코스타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이 방법은 회원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식품을 저장할 것을 장려합니다. 둘째, 비상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품 또는 임대와 같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음식 기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케네디 스테이크가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가족이 얼마간의 식품을 저장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얼마간의 식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스테이크는 음식 현금 기금 면에서 자립하고 있다.

팔라치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단지 식품과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저장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케네디 스테이크 반데라스 와드의 이르마 피네로스 자매는
 상호부조회에서 바느질을 가르친다. 그녀는 말한다. “어떤 한
 자매는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재봉틀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요.”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의 로베르토 루비오 성전장은 말한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먹을 식량과 입을 옷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들의 필요 사항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표준에 맞추어 충족되고 있습니다.”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여러 스테이크 대회에서 저는 상당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닌 회원들에게 지난 날 교회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지금보다 좋았는지를 물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교회로 인해 더 적게가 아니라 항상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립의 발전

보고타에 있는 여덟 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 또는 보좌들



콜롬비아의 성도들은
 “거룩한 곳에 ...
 서[라]”(고리와 성약
 87:8)는 주님의 권고에
 따르고 있다.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영적으로
 자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회원들이 함께



카르멘 메리살데



루시아와 알폰소 테노리오



로사와 파비안 사야베드라

만 은 회원들이 채소밭을 가꾸고
 식품을 저장하여 물질적으로
 자립하고 있다.

모일 수 없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대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강화. 그토록 위험한데도 콜롬비아의 회원들은 어떻게 외출을 하며, 자녀들을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대답은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의 대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도라와 저는 집을 떠나기 전에 매일 아침 자녀들과 함께 가족 기도를 갖습니다.”라고 콜롬비아 메델린 스테이크장인 세르히오 코레아 형제는 말한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성신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 옳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필요한 일을 행합니다. 밤에는 가족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

코레아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정말로 파괴적인 것은

폭탄이 아닙니다. 죄가 훨씬 파괴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가족 기도를 하고, 경전과 현대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교회에 참석하고,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갈 것을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며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로베르토 가르시아 장로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어 말일성도 청소년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콜롬비아의 교회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구대 의연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준비.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1984년 4월에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 건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전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15년이 걸렸다. 그 세월 동안 반대와 법적

분쟁과 낙담이 빈번했다. 한편으로는 금식과 기도와 줄기찬 노력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나라에 있는 성전으로 기나긴 여행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99년 4월에 성전 문이 열렸을 때, 성도들은 그들의 인내와 준비에 대해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성전 설계자 세사르 에이 다빌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어려움과 지연 상황이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는 가장 중요한 것들, 즉 가족과 간증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빌라 장로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가 족들이 영적인 자립을 발전시키면서 가정이 기록해지고 있다.



코레아 가족



토본 가족



에르난데스 가족



홀리아오 가족

EL LIBRO DE MORMÓN

OTRO TESTAMENTO DE...

단단한 토대에 대해 말하면서 성전 밑에는 200개 이상의 50미터짜리 철골 기둥이 묻혀 있다고 언급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 성전은 수세기 동안 서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성전의 강한 기초에 담긴 상징을 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히라만서 5:12) 위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 간증, 경전 공부, 기도, 살아 있는 예언자들에 대한 순종과 같은 강한 기둥 위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축복.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스테이크의 카를로스 베가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영적인 특성들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다 강한 지도자들을 갖고 있고, 더 많은 회원들이 순결의 법에 순종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혼을 성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초점은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콜롬비아 보고타 그라나다 스테이크의 에드가르 제이 고메스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우리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선언문을 우리의 가르침 교재로 자주 사용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가족 역사 지원 서비스의 관리자인 하비에르 토본은 여러 대에 걸쳐 자신의 가족 역사를 정리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게릴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합시키고 있습니다.”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 콜롬비아의 침례율이 높기는 하지만 교회 참석율이 침례 수보다도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회원들의 활동 촉진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냅니다.”라고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이런 성공의 한 가지 비결은 새로운 회원들이 받은 보살핌이다. 침례 및 확인을 받은 즉시 그들은 무상으로 *리아호나* 잡지를 받는다. 새로운 가족들은 또한 개인에 맞추어 작성된 편지와 기본 자료 상자를 받는데, 여기에는 가족 선언문, 살아 계신 그리스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자에는 또한 엄선된 교재, 그리고 성전 및 가족 역사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워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새로운 회원들이 자료 사용법을 알도록 도와 주고 새로운 개종자의 발전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들이 성전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회원들을 양육하기 위해, 스테이크는 교사 향상반을 갖는다. “우리는 교사들이 자신의 생각 대신에 주님의 교과 과정을



희망을 널리 전하는 등대

많은 종교 단체의 사람들은 콜롬비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성전의 커다란 영향력을 인정한다.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성전을 “우리 시와 우리 나라에 있는 웅장한 보물”이라 부른다. 이웃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어울리게 자신들의 집을 가꾸려 노력하고 있다.

“온 도시가 향상되었습니다.”라고 카를로스 베가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우리 도시와 가정에서 평화의 느낌이 커졌습니다. 여전히 폭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폭력의 외침이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회원이라는 우리의 느낌은 성전을 통해 향상되었습니다.”라고 콜롬비아 보고타 시우다드 하르딘 스테이크의 카를로스 오스피나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사람들이 성전에 관해 알기 때문에 복음에 관해 말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성전은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라고 로베르토 루비오 성전장은 말한다. 그와 두 보좌, 그리고 거의 모든 성전 봉사자들은 콜롬비아 원주민이다. “회원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전쟁과 죄악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지니고 우리 가족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라고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총관리 직원들을 따르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크장단에게 보다 큰 신뢰를 보이고 있고, 그들이 열쇠와 권세, 권능, 그리고 영감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많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충실함의 열매를 즐김. 회원들은 1977년에 있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벌 대관장의 방문과 1996년에 있었던 방문, 그리고 성전 헌납을 위해 1999년에 다시 있었던 고든 비 힝클리



성전으로의 여행

시골 지역을 지나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편으로 성전에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상 여행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스테이크에서 준비한 전세 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여행하기도 한다.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라고 로베르토 루비오 성전장은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백만장자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레이라에서 버스를 타고 온 자매는 80세가 넘었는데 너무도 가난합니다. 그 노인은 성전에 오기 위해 신문을 팔고 또 빈 유리병을 모아서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바로 에미로와 마르티자 아리사는 최근에 한 살에서 열 살 사이의 다섯 자녀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 그들은 처음에 버스를 타기 위해 40분을 걸었다. 그런 다음 두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바르보사에 도착하여 거기서 콜롬비아 두이타마 지방부 바르보사 지부장인 이스마엘 카레노 형제의 인도를 받아 버스로 여행하는 회원들과 합류했다. 거의 다섯 시간 동안의 또 다른 버스 여행 후에 그들은 성전에 도착하여 가족 인봉을 받았다.

카르타헤나의 회원들은(위) 최근에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편도 20시간이 걸리는 길을 따라 성전으로 갔다. 승객들 중에는 조니 산 후안 장로 정원회 회장과 아내인 에베르리데스 청년 회장,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가 있었다. 시간을 들여 4대에 걸친 가족 역사 기록을 끝냈기 때문에 12살 된 딸 에스테파니아는 조상들을 위한 침례를 받았으며, 조니와 에베르리데스는 그들을 대신해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았다.

대관장의 방문을 회고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교회의 성장을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바라본다. 1960년대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보잘 것 없었지만, 지금은 콜롬비아에 145,0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있다. 네 개의 선교부에는 모두가 콜롬비아 및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온 약 800명의 전임 선교사들이 있다. 도처에는 말일성도 집회소, 가족 역사 센터, 종교 교육원, 선교사 훈련원, 성전이 위치해 있다.

칼리에 사는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기록, 언론 자료, 사진 등을 가지고 주요 사건들을 문서로 정리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은 또한 회원들의 삶과 마음에 기록되고 있다. 보고타의 파비오와 루이사 페르난다 보오르케스 부부는 최근에 성전 의식에 참석했을 때, 엑토르와 마리나 카노가 의식 집행자인 것을 보고는 겸손해졌다. 그들은 오래 전에 파비오가 페레이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침례를 주었던 부부였다. 카노 부부는 성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장래에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바랑키야에 사는 로베르토와 파비올라 홀리아오는 가족을 집에 모이게 했다. 홀리아오 형제와 자매가 1975년에 있었던 그들의 침례, 1986년의 성전 인봉, 그리고 다른 경험들에 관해 회상할 때 손자녀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보조 조직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은 와드 초등학교 회장이자. 그는 많은 신권 부름에서 행한 봉사에 관해 이야기하고는 소중한 기념품 하나, 즉 보고타 성전 기공식에 참여하여 사용했던 삼을 손자녀들에게 보여 주었다.

아들인 크리스티안은 그의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문득 그들은 복음에 관해 배워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나중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한번은 크리스티안과 부친이 함께 선교부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한 적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원리들을 부친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유산을 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고 싶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됨

회원들이 보다 안정된 자립을 하게 되면서 그들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교회는 선한 이웃으로서 행한 역할에 대해,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그리고 회원들의 애국심에 대해 보다 큰 감사를 느끼고 있다.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됨. 콜롬비아 메델린 벨렌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는 요리, 수공예, 미술 및 공예반을 갖고 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있고, 그들은 교회의 관대함과 이웃의 정신에 감사하고 있다.

메델린 벨렌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인 에두아르도 파스트라나 박사는 말일성도의 가치관을 텔레비전 회견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 “저는 메델린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의 하나로 꼽힌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녀들과 저는 복음의 빛으로

인해 가정에서 평화를 느끼며, 제 환자들과 그 평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부카라만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엑토르 엘리아스 아리사는 산탄데르 주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그와 그의 동생 세르히오는 스테이크 합창단에서 지휘와 반주를 맡고 있으며 이 합창단은 지역 사회를 위해 성탄절 연주회를 갖는다. 여동생인 파트리시아는 판사이다. 은퇴한 교사로 그들의 어머니인 올가는 자녀들의 직장 동료와 다른 친구들을 위해 즐거운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대통령과 영부인과 함께 노력함. 교회 회원들은 대통령 영부인인 리나 마리아 모레노 데 우리베 여사와 함께 인도주의 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휠체어, 청력 보조 기구, 안과 수술, 학교 책상들을 제공했다.

영부인은 기증된 물품을 나누는 일을 돕기 위해 말일성도 예배당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



파스트라나 가족

교 회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콜롬비아의 대통령 영부인(가운데)이 청각 보조 기구를 받는 한 소녀와 인사하고 있다.



콜롬비아 대통령(가운데)이 코스타 장로와 가르시아 장로를 만나고 있다.

참여했다. 이런 행사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스테이크 합창단이 교회 찬송가를 노래한다. 정부 지도자들, 외교관, 언론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기증된 물품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다. 코스타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책상을 받은 한 학교를

대표하여 어떤 학생은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고, 정직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은 지역 회장단과 다른 사람들이 남편인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 콜롬비아 대통령을 만나도록 주선했다. 그 방문은 2003년 11월 7일에 대통령 궁에서 있었다. 우리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과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시민들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저의 지원과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베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고 가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교회의 위치는 “우리의 목적은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 및 인도주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코스타 장로는 덧붙인다.

“어떤 사람이 휠체어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되고, 국법을 존중하고,

투표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기여하고 회원들에게 가르칩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는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콜롬비아가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로베르토 가르시아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가정과 성전, 예배당, 직장, 학교, 지역 사회라는 거룩한 곳에서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고, 가족을 강화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상처 받은 나라를 치유하고 축복하기 위해 돕고 있다. ■

어린 양이 팔리던 날

줄리 에이 매스터즈

우리 가족은 8여 년 전에 네바다주 로간데일로 이사를 했고, 그 이후로 클라크 카운티 박람회회에 참여해 왔다. 그 박람회는 매년 4월 부활절 즈음에 열린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키운 돼지, 수소 또는 어린 양을 보여 줄 수 있다. 동물들은 목요일에 심사를 받으며, 경매는 토요일에 열린다.

나는 항상 경매가 두렵다. 내 자녀 중 어느 하나가 팔리지 않는 동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매가 열리기 전에 누군가가 자녀들의 동물을 미리 사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설사 자녀가 기른 동물이 미리 팔리더라도 여전히 경매에서 자녀의 차례가 오기를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

내가 이제까지 목격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3년 전의 경매에서 있었다. 우리는 그날의 대부분을 경매인의 외침과 군중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동물들 고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알루미늄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우리는 그와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우박을 몰고 와 건물을 때리는 소리였다.

곧 이어 경매에 참석한 부모 및 친척들과 더불어



저 양에 비해 꽤 많은 돈인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금속으로 만든 축사 안에서 피할 곳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상당히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서 왔으며, 예전에 실제 동물 경매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경매가 즐겁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입찰을 하기도 했다. 물론 경매인이 값이 무게에 따라 매겨진다는 점을 설명한 후에 입찰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돼지가 경매에 올려져 팔렸을 때 나는 굉장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기억한다.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 소음, 역겨운 냄새에서 멀리 벗어나 집에 가는 것뿐이었다. 여전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차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경매인이 어린 양을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한 어린 소녀가 어린 양을 데리고 나왔고 입찰이 시작되었다. 나는 정확한 가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 양에 비해 꽤 많은 돈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기억한다. 그 다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어린 양을 산 사람이 그 양을 그 소녀에게 기증하여 다시 팔 것이라고 경매인이 설명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 소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그 소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 아버지는 암에 걸려 있었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었다. 그 가족은 의료 보험을 들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내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이었다.

입찰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어린 양은 가치에 비해 전례 없는 가격에 팔렸다. 다시 그 어린 양은 재판매를 위해 재기증되었다. 그 때쯤 내 시동생이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돌아왔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며 내 의도와는 달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어린 양은 거듭해서 다시 팔렸으며, 그 도시에서 온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했고, 그 가족을 위해 다시 기증을 했다.

나는 그저 놀란 채 그 곳에서 있으면서 또 다른 어린 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양은 그저 한 가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거듭해서 팔렸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부활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 날 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중요성과 지역 사회의 중요성에 관해 내게 증거해 주었다.

애석하게도 이 어린 소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

뒤 그 가족은 우리 와드로 이사를 왔고, 그 선한 아버지의 아내는 어느 일요일에 상호부조회에서 간증을 했다. 그녀는 경매에 관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죽어가는 남편과 어떻게 보냈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얘기했다. 그녀는 누가 또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기증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돕기 위해 관심을 보여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마음이 감동되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클라크 카운티 박람회에서 그 비바람이 불던 날, 바로 그 어린 양이 팔리던 날에 그녀의 가족에게 보여 주었던 사랑과 도움에 무척이나 놀랐다. ■

줄리 에이 매스터즈는 네바다 로간데일 스테이크 로간데일 제1와드의 회원이다.



우리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16 세의 히로누이 존스틴과 여동생인 15세의 메리라니는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매년 여러 차례 갖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성전 경내에 있는 것이다. 정원을 가꾸거나 다른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곳에 앉아 있거나 걸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바라보고 있다.

“저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메리라니는 말한다. “우리는 성전에서 경험한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히로누이와 메리라니는 성전 경내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느낌 때문에 그 곳으로 간다. 그 곳은 그들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우리 이웃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쁜 아이들이 몇몇 있어요.”라고 히로누이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성전 경내에 있을 때 너무나 좋은 느낌을 받아요.”

가끔씩 온 가족이 가정의 밤 활동을 위해 또는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성전에 오기도 한다.

“때때로 우리 사이가 좋지 못할 때도 우리는 다시 잘 해 보기 위해 이 곳으로 옵니다.”라고 히로누이는 말한다. 그러나 존스틴

가족이 성전에 있지 않을 때에도 성전은 그들의 삶의 일부다.

“우리 집에는 방마다 성전 사진이 걸려 있어요.”라고

히로누이는 말한다. “아름다운 사진이죠.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똑같은 평화스러운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복 받은 세대

히로누이와 메리라니는 지금은 20년도 넘는 이 성전이 없었을 때, 타히티가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는 타히티 회원들의 제1세대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성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

그러나 이런 타히티 청소년들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본다. 그것은 그들 삶의 일부이다.

“성전을 볼 때 저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타히티 스테이크 티아파 와드의 12살 된 와오나 아우라아는 말한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타히티의 새로운 세대에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을까? 와오나 와드의 청소년들과 대화를 한 후에 그 답은 명확해졌다. 이 청남 청년들은 성전 축복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며, 성전 의식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고, 또 성전 성약이 그들의 가족을 영원히 맺어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성전이 헌납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태어난 마르비아 타우이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 갈 수 있는 방법대로 생활합니다. 그것은 제가 선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줍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도록 도와 줍니다.”라고 열네 살 된 테나야 아우라이는 말한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더 나이가 들 때까지는 그것이 교회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전 의식이다. 이 청남 청년들은 그것이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조상들이 구원 의식을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18세의 마타이티니 아우라이는 말한다. “그것이 바로 아주 가까이 있는 성전이 주는 축복입니다.”

타히티 파에아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인근에 성전이 없었다면
메리라니(왼쪽 아래)와
히로누이 존스턴(오른쪽
아래), 헤이파라
타우이라(아래 원내)와
와오나 아우라이(반대쪽)의
삶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가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18세의 헤이파라 타우이라에게 그 날은 그리 멀지 않다. 그는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강하게 보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분들의 간증은 강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전에 대한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같은 소망, 즉 성전 성약을 통해 그들이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나눈다.

“성전은 우리의 가족을 맺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12세의 마헤아리이 타우이라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축복함

성전의 축복은 여러 세대를 통해 가족들을 함께 연결시켜 준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사랑은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성전에 가시는 것을 봅니다.”라고 히로누이는 말한다. “우리는 그분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의 성전 참석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존스톤 오누이의 부모님에게서 시작된 성전에 대한 그런 사랑은 히로누이와 메리라니에게 전해져 왔다. 그들의 행동은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전해 줄 수 있다.

“저는 언젠가 자녀들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메리라니는 말한다.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에서도 이 건물의 심오한 영적인 목적이

나타나 있으나, 그러한 영적인 목적은 그 건물의 내부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문 위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성전이나 헌납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곧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거룩한 성전”,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14쪽.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또 우리가 충실하다면 성전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전의 축복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세대는 현재 축복을 받고 있다.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행할 때, 그런 축복들은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그런 축복들은 미래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 나라에 그분의 집을 지으심으로써 실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메리라니는 말한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성전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과 가족이 함께 인봉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축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청남 청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장할 때, 성전의 축복은 그들의 조상들뿐 아니라 장래의 그들의 가족들도 축복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루이스 아리엘 호세

열 일곱 살 때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일요일에 가끔씩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성찬식에서 지부장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오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나는 인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나는 예전 직장의 수입보다 두 배를 벌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또한 나는 일요일에 일할 필요도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모든 율법에는 순종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였다. (교리와 성약 130:21 참조) ■

루이스 아리엘 호세는 도미니카 공화국 라베가 스테이크 코투이 제1지부의 회원이다.



특별한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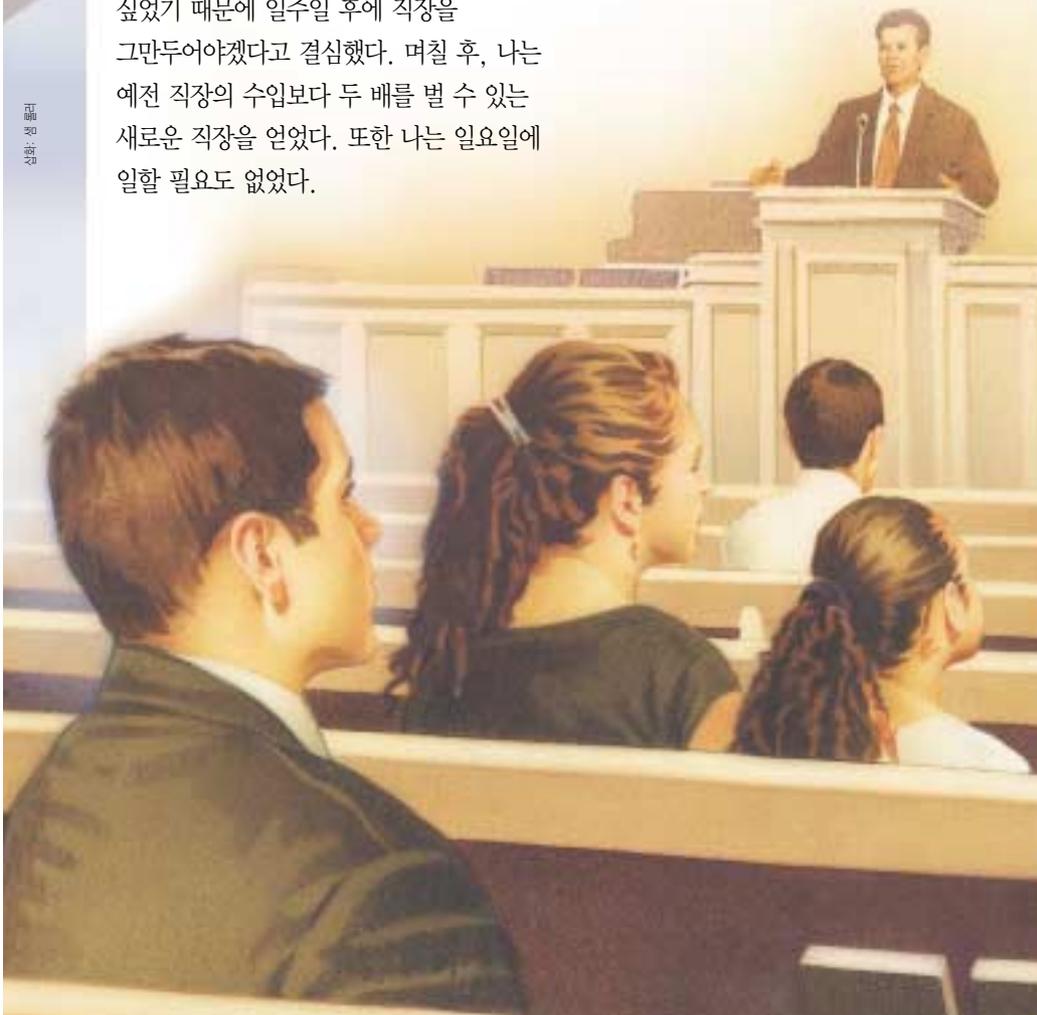
오레야바 오히와부콜라

우리가 처음 가정의 밤을 갖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지루하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친은 교회 회원이 아니셨다. 장남이었던 나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충분히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친구들과 가족의 가정의 밤에 참석했고, 그들의 아버지들이 회원이 아닐지라도 서로 함께 영향을 주고,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가정의 밤에 관해 부러운 생각도 들고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공과 임무 지명을 받을 때마다 나는 공과를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정의 밤은 성공적이었다. 주님은 우리 가족을 축복하셨으며,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의 밤이 있는 일요일을 매주마다 기다린다. ■

오레야바 오히와부콜라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스테이크 수루레레 와드의 회원이다.

신학, 토크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됨

리아호나에 대해 그리고 그 기사들을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비록 종교에 관해서는 가르칠 수 없지만 일하면서 여러 기사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3년 2월호에 실린 제임스 이탈리아 장로의 비유, “어리석은 별”은 학생들을 인도하려 노력하는 성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싶어한다는 것을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아호나에 있는 비유들과 이야기를 활용하여 가르쳤던 교훈들은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알렉세이 도브로볼스키,
우크라이나 오데사 첸트랄니 지방부
미콜라이브 첸트랄니 지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됨

2002년 11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의 기사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엘마가 그랬던 것처럼 범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기사는 감독님께 고백을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엘마처럼 고통으로 가득했던 만큼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엘마서 36:16~21 참조)

익명

혼자서 갖는 가정의 밤

2003년 3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기사 “가정의 밤”은 비록 제가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리아호나를 통해 현대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관해 배우고,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더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 매주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는 제가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르히오 아드리안 로페스,
아르헨티나 살타 웨스트 스테이크
솔리스 피사로 와드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리아호나

리아호나는 제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실린 기사들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제 신앙은 커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제 사랑은 강화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알레한드라 바랄라가,
온두라스 산페드로 솔라 스테이크
하르디네스 델 발레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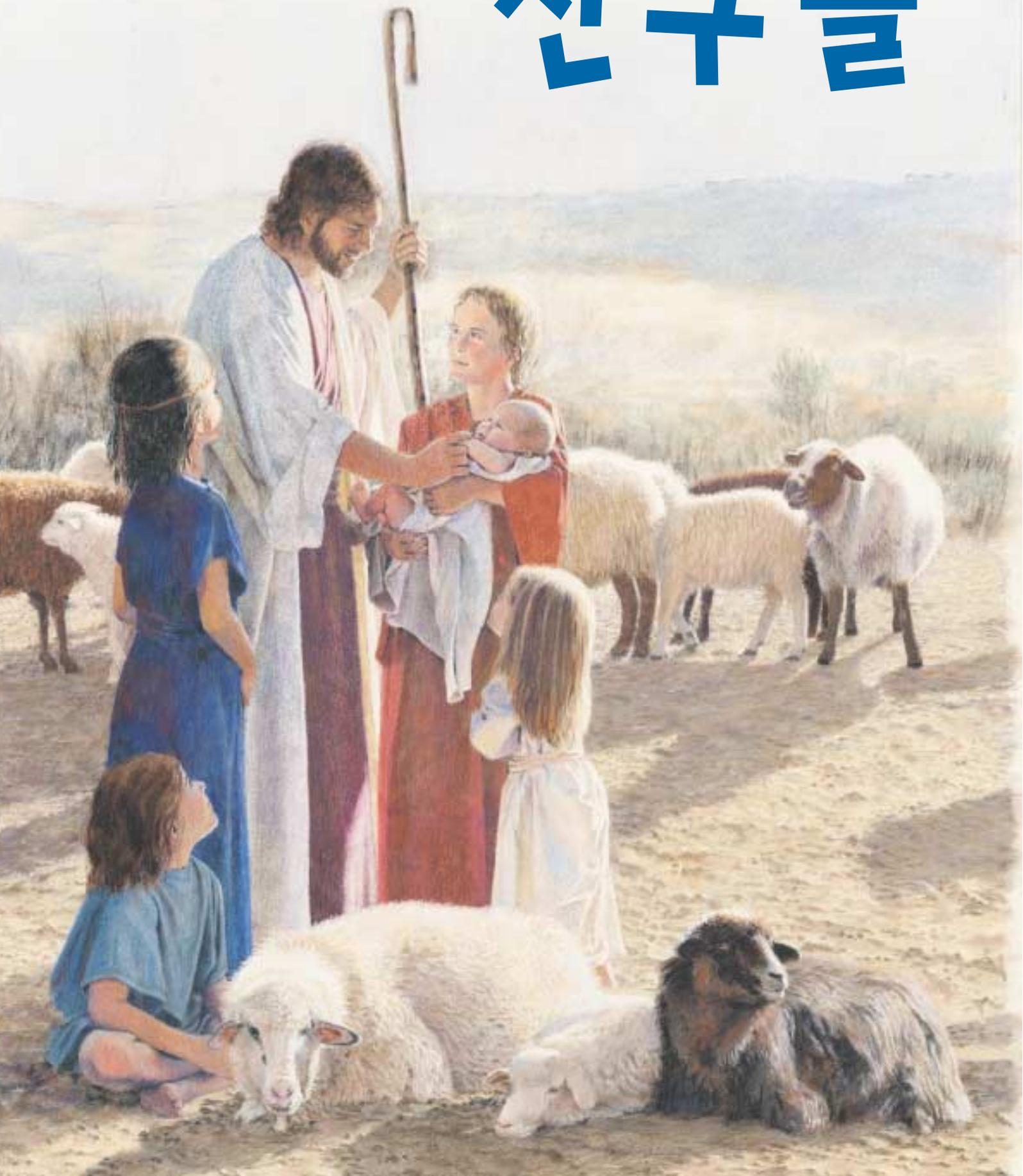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곳

제175차 연차 회의 음성 녹음을 30개 이상의 언어로 www.lds.org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달력의 4월 2일과 3일에 표지를 하고 시간을 내어 메시지를 듣는다.



왼쪽: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위쪽: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맨 위쪽: 사진 촬영: 웰든 시 맨더슨

친구들



라벨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장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 미술관은 실로 세계적인 큰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이 국립 미술관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이 유명한 장소에 전시된 훌륭한 초상화와 풍경화들에 화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작품의 라벨에 쓰여진 정보는 작품에 대한 우리의 평가견해에 ...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각 작품을 스스로 평가판단한 후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라벨을 그림의 하단에

붙여[덜 중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의 라벨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람들의 외모가 그릇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고, 재능이 없고, 또 평범한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자신이 태어난 보잘것없는 작은 통나무 오두막집 앞에서 있는 모습을 그린 소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림 아래에는 기억해 둘 만한 라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에서 살았으며, 보잘 것없는 옷을 입었으며, 보잘것없는 음식을



그림: 데이비드 린드홀러, 현대 호르모만의 그림에 기록해사: 그림: 생전에 계신 예수, 소년 사무엘의 시선, 윌리엄 헨리 미켈슨



몬슨 부대관장님은
 겸손한 마음의 라벨에
 적힌 메시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먹었음.” 거기에 적혀 있지 않은 그 소년의 진정한 라벨은
 “불멸의 영광을 위해 운명 지어짐”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소년의 가치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기다려 바라보아야만 하리.
 하지만 고귀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난 날 한때는 소년이었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는
 또래의 다른 젊은이와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고 나서, 그는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연로한 엘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사무엘상
 3:4)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소년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말해 주자, 사무엘은 엘리의
 권고에 따라 곧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사무엘상 3:10)라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셔서 ...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사무엘상 3:19~20)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소년이었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시고” 그 선생들이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누가복음 2:46~47; 요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2:46) 여겼습니다. 성전의 선생들은 그 소년의
 외적인 라벨에서 총명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미래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로서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라벨에 적힌 메시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그것은 소년 사무엘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니다. 그
 말이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는 라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2~7쪽, ‘라벨’에서 발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 복음 3:16)

마가렛 리퍼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평화를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를 느끼니까? 경건한 초등학교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느껴집니까? 이런 영적인 느낌들이 여러분의 간증의 시작입니다.

간증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누가복음 2:52) 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조직하고, 십이사도를 불렀으며,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은 그분에 대해 배우고 예언자들의 간증을 읽을 때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에서 이러한 간증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하나님이며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간증드립니다. (Friend, 2002년 11월호, 3쪽;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5쪽 참조)



성구 연결하기

많은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5쪽에 나와 있는 성구들은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말해 줍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참조 성구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그런 후 그 예언자와 참조 성구들을 연결해 봅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서너 명의 성인 회원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의 모범에 대한 경전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분의 모범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말할 준비를 하게 한다. 복음 그림 패킷 240(예수 그리스도)과 212(산상수훈)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림들을 붙인다. 모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성인 회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도록 부탁한다. 어린이들에게 발자국 모양의 종이를 나누어 준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그리거나 적으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그림에 이르는 길에 발자국들을 붙인다.
2. 신앙개조 제3조를 복습한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속죄를 기억한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26장 17~30절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들려 준다. 예수님이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읽거나 말해 준다. (니파이삼서 18장)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 것”을 약속한다고 가르친다. 성찬식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동그렇게 둘러 앉으라고 한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이야기를 묘사한 그림 몇 장을 얹어 놓는다. 반주자가 조용히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둘러 앉은 어린이들은 적절한 물건 하나를 옆으로 전달한다. 음악이 멈추면 물건을 들고 있는 어린이가 그림을 선택한다. 어린이는 그 이야기를 말로 하거나, 그 어린이가 그 이야기를 역할 담당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몇 명의 어린이를 선정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반복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 표지를 보여 준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이 지도서를 교회에 가져올 때, 예수님의 그림이 성찬식과 나머지 한 주 동안 주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 준다. ●

그림: 존 스킵트, 이더블을 방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림: 웨일스, 온 모세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림: 데이비드, 첫번째 시간; 그림: 웨일스, 첫번째 시간; 그림: 웨일스, 첫번째 시간; 그림: 웨일스, 첫번째 시간

구조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됨을 알아라.”(니파이이서 25:23)

툼 로울스톤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함

“수

업 끝난 후에 슬라이딩 하러 갈래?” “물론이지”라고 나는 대답했다. 일곱 살이었던 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의 가넷 힐 학교에 새로 온 학생이었다. 슬라이딩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친구를 몹시 사귀고 싶었다.

곧, 우리는 철제 담장 옆에 서게 되었다. 그 너머로, 비탈진 콘크리트 경사가 높은 담 위에서 어떤 건물의 밑부분까지 이어져 있었다.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가죽 신발을 신고 경사를 탄 덕에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게 잘 닳아서 유리처럼 반짝였고, 미끄러움을 타기에 완벽했다.

새로운 친구를 따라 담장을 넘어가면서 나는 조금 겁이 났다. 우리가 무단 침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몸을 낮추고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꺾기를 가르는 바람소리와 세상이 흐릿해 보이는 스틸을 한 번 맛보는 순간 나의 두려움은 금세 사라졌다. 미끄러운 경사를 다시 올라가는 일은 훨씬 더 힘들었다. 건물을 박차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서 꼭대기에 닿으면 뒤로 다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철제 담장을 꼭 붙잡아야 했다.

미끄러지기와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노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경사로 끝에 있는 건물을 등지고 서서 비를 피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집에 가야 해.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경사로를 반도 못 올라가 나는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다. 비로 인해 콘크리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끄러워진 것이다. 몇 번의 필사적인 시도 끝에, 우리 모두는 포기를 하고 말았다. 간혀 버린 것이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비는 계속해서 부슬부슬 내렸다. 우리는 그 곳에 간 일로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감히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다. 경사로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우리는 춥고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다.

꽤나 긴 시간이 지난 듯했을 때, 한 줄기 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지역 경찰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위로 올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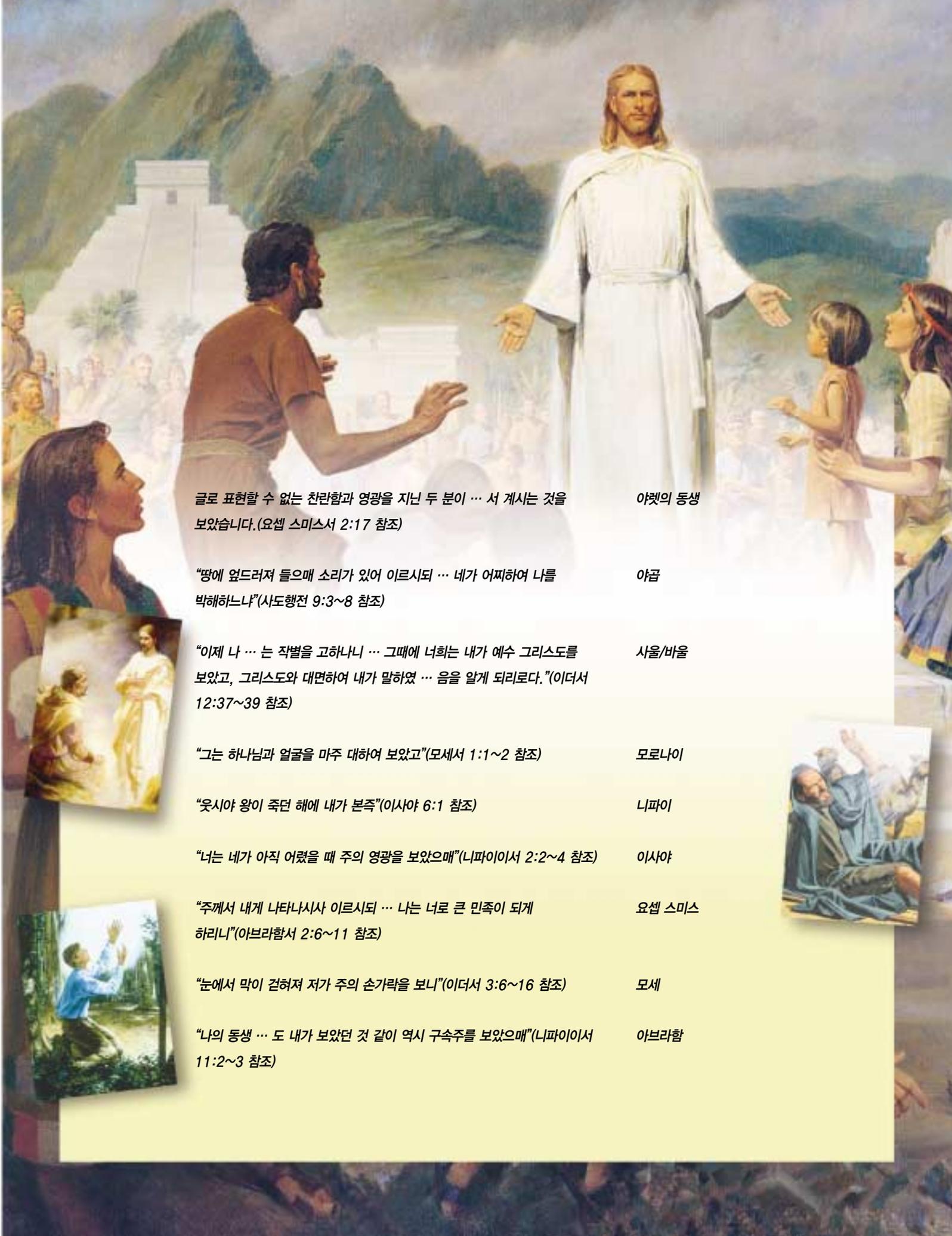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미끄러워요!”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찰관 아저씨는 담장 위로 올라와, 한 손으로 철제 담장을 잡고 몸을 가능한 한 아래로 기울였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씩 경사를 반쯤 기어올라가 경찰 아저씨가 내민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끌어올린 뒤, 아저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나무라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나중에 내가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어린 시절의 이 구조 사건은 구원의 계획에서 구세주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죄는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경사처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사랑의 구세주는 마치 경찰관 아저씨가 손을 뻗어 미끄러운 경사로부터 우리를 구조한 것처럼 그분의 손을 뻗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신다. 그러나 경찰관 아저씨는 일정한 거리 만큼만 손을 뻗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부분을 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세주는 그 나머지를 하신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느낀 안도감은 구세주에 의해 구조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느낄 기쁨의 작은 일부를 맛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툼 로울스톤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나나이모 스테이크 켈리컬 자부의 회원이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참조)

아렛의 동생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사도행전 9:3~8 참조)

아곱

“이제 나 ... 는 작별을 고하나니 ...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내가 말하였 ... 음을 알게 되리로다.”(이더서 12:37~39 참조)

사울/바울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모세서 1:1~2 참조)

모로나이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사야 6:1 참조)

니파이

“너는 네가 아직 어렸을 때 주의 영광을 보았으매”(니파이이서 2:2~4 참조)

이사야

“주께서 내게 나타나시사 이르시되 ...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아브라함서 2:6~11 참조)

요셉 스미스

“눈에서 막이 겹혀져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니”(이더서 3:6~16 참조)

모세

“나의 동생 ... 도 내가 보았던 것 같이 역시 구속주를 보았으매”(니파이이서 11:2~3 참조)

아브라함



거룩하신 주님의 빛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교리와 성약 42:45)



본부 청녀 회장
수잔 더블류 태너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잡지 부의
김벌리 웨이
인터뷰함.

저는 초등학교 노래와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는 “거룩하신 주님의 빛”(찬송가 195장)이었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어린이 노래책, 35쪽)라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게 간증이 없었던 때를 한 번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알았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집에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낙농장에서 자라면서 나무 집을 만들고 들판에서 사촌들과 야구를 하며 어린 시절을



왼쪽에서부터: 네 살 때 사촌 테드 윈더와 함께, 결혼식 날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골목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일하고, 놀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고 대단치 않은 일들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형제들에게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생각하도록 현명하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랑한다, 애들이. 너희는 착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분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밭에 물 뿌리는 기계를 작동시키고 안으로 들어와 경전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공부하실 때 함께 앉아서 그림책을 보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 경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저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셨습니다. 저는 여덟 살 때 요리를 배웠고, 아홉 살 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매우 즐겼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그 일을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안 초등학교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는 항상 제게 집안을 가꾸면 행복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제게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어머니는 저의 반까지 저를 데려가 선생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렴, 메릴 선생님의 반이 되었구나. 네 오빠 릭도 작년에 메릴 선생님의 반이었던단다.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란다.” 그 말은 저의 불안을 좀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팔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우는 다른 어린 여자 아이를



위: 다섯 명의 자녀와 태너 부부, 두 사위, 다섯 손자들 중 세 명.
아래: 태너 자매와 부모님의 최근 사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서 친구가 되어 주렴.”이라고 속삭이셨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떠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네가 드리는 기도에 신경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네 기도에 응답 하시거든.” 제게는 신앙을 가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달에

겨자씨가 박힌 목걸이였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때, 저는 어머니께 목걸이를 드리면서 어머니는 제 신앙의 가장 큰 모범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태어났으며 가족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거의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에 나가고 싶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침례를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녀였고, 어린 동생들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후에, 외조부모님은 어머니의 모범을 따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에서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초등학교 노래의 가사들을 배우고, 여러분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이 가사들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안과 지침을 줄 것입니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

데이비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와 그의 형제 자매들은 리스 가족의 집에 세들어 살았습니다.



엠마 레이, 보렴. 맥케이 형제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방금 도착했어. 아들들이 어머니께 얼마나 친절히 대하는지 보렴. 그들은 미래에 좋은 남편들이 될 거야.

나는 저 사람이 맘에 들어.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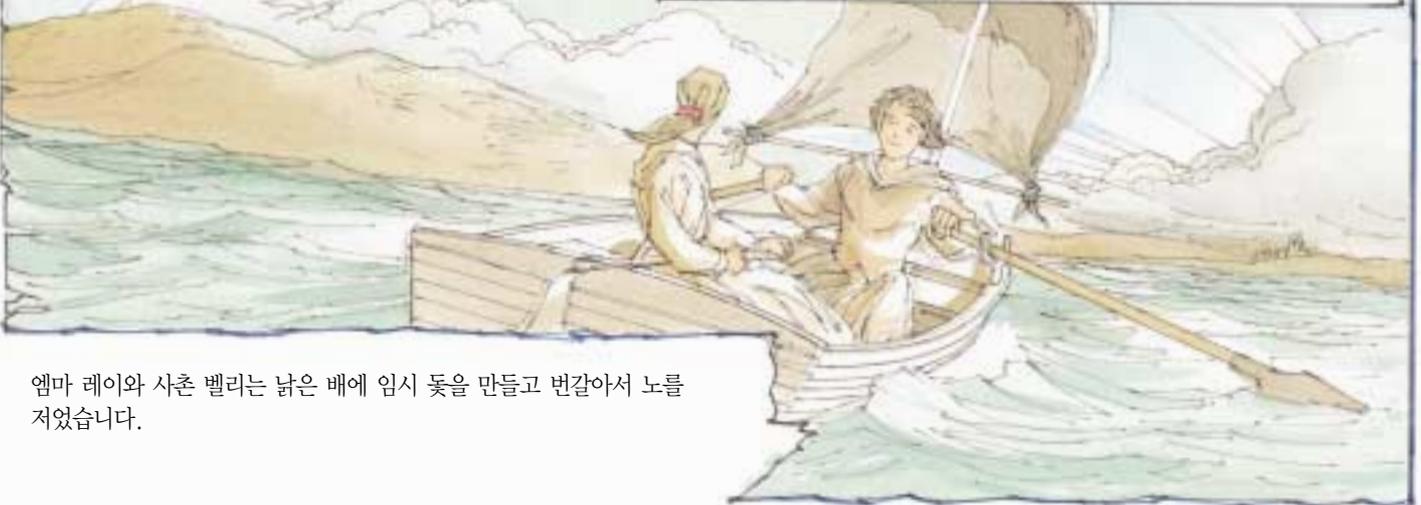


엠마 레이, 들었니? 데이비드 맥케이가 오늘 밤 집에 온대.

기차역에 나가서 그를 만나야겠어!

시간에 맞춰 떠나는 배가 없을 거야.

엠마 레이는 데이비드가 언제 돌아오는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녀와 사촌인 벨리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의 섬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 엠마 레이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엠마 레이와 사촌 벨리는 낚은 배에 임시 돛을 만들고 번갈아서 노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엠마 레이가 그 곳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맥케이 장로님.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일년이 조금 지난 후,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는 20세기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처음으로 인봉된 부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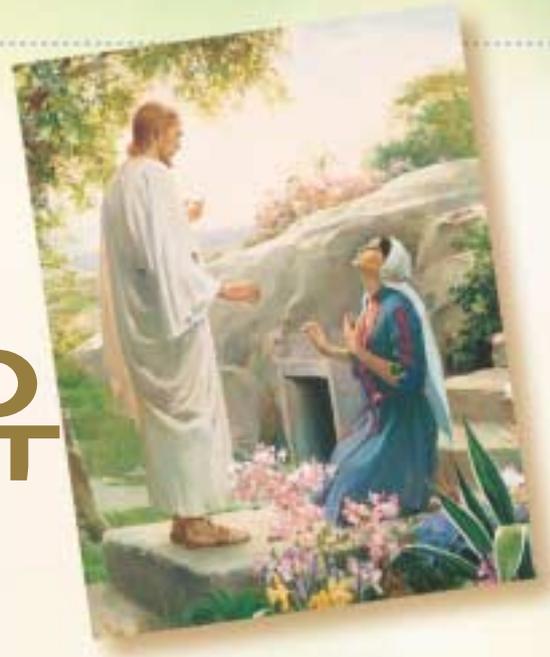


영원한 동반자이자
상담자이며 조연자인
영원한 나의 아내,
나의 엠마 레이

69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그들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려 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종종 서로에게
시를 써 보냈습니다.

*Susan Arrington Madsen, The Lord Needed a Prophet(1990), 139~140쪽; David
Lawrence McKay, My Father, David O. McKay(1989년), 1~2쪽; 보이드 케이 패커, Eternal
Love(1973년), 21쪽에서 발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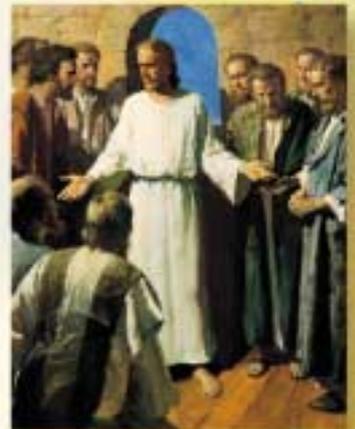
부활절 프로그램, 론다 킵 힌리치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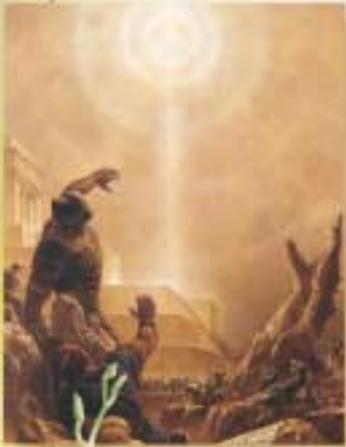
마태복음 26~27장; 누가복음 22~24장; 요한복음 18~21장; 니파이삼서 8~11장 참조.

주: 세 명의 해설자가 필요하다.(아니면 많은 어린이들이 해설자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리아호나*의 그림이나 복음 그림 패킷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래의 노래들은 제언이다. 여러분은 구세주에 초점을 맞춘 다른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노래: “아름다운 구주”(어린이 노래책, 62~63쪽;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친4~5쪽)
- 첫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킷 227 -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 두 번째 해설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
- 세 번째 해설자: 예수님의 완벽한 삶,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겪으신 고통,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속죄의 부분들입니다. 속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 해설자: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 두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킷 - 예수를 배반함**
예수님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악한 사람들이 검과 창을 가지고 그분을 체포하려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를 바라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들에게 그분을 데려갔습니다.
- 세 번째 해설자: 그런 후 그들은 주님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라는 로마의 지도자에게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많은 죄를 지었으며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첫 번째 해설자: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분을 놓아 주고 싶었습니다.
- 두 번째 해설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누가복음 23:21 참조)

세 번째 해설자: 마침내 빌라도는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못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키지 230을 보여 준다-십자가에 달리심[못박히심]**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설자: 그런 후 예수님은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
 세 번째 해설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해설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매우 슬펐습니다.
 노래: **“황금 빛 봄날”을 허밍으로 부르거나 조용히 연주한다.(어린이 노래책, 57쪽; 리아호나, 1995년 4월호, 친13쪽)**
 세 번째 해설자: 삼일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육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노래: **“황금빛 봄날” 2절(어린이 노래책, 57쪽; 리아호나, 1995년 4월호, 친13쪽)**
 두 번째 해설자: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키지 233을 보여 준다-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고, 그분을 보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키지 234를 보여 준다-예수님이 그분의 상처를 보여 주심.**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만져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고, 기뻐했습니다.
 노래: **“호산나”(어린이 노래책, 66~67쪽; 혹은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두 번째 해설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커다란 폭풍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대륙에는 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해설자: 지진, 화재, 홍수가 많은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산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초들은 빛을 받지 않았습니다. 불이 타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해설자: 니파이 백성들은 겁에 질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해설자: 그들의 집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삼일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 때-
 첫 번째 해설자: 조용한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두 번째 해설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으라.”

세 번째 해설자:

마침내 삼일이 지났을 때, 땅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니파이인들은 구속주를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운티폴 땅에 있는 성전 근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해설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해설자: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깊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해설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니파이삼서 11:7)

두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키지 315를 보여 준다-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위를 올려다 본 니파이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해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니파이삼서 11:14)

두 번째 해설자:

니파이인들은 그분께 갔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 보았습니다.

노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니파이삼서 11:17)

첫 번째 해설자:

“부활절 호산나”(어린이 노래책, 68~69쪽;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친8~9쪽)

세 번째 해설자:

복음 그림 패키지 227을 보여 준다-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노래: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어린이 노래책, 44쪽, 또는 “성찬”,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친11쪽)

룬다 김 헨리치슨은 유타 윌라드 스테이크 페리 제3wards의 회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유의 사항: 색칠된 종이 스크랩을 작은 조각들로 잘라서 같은 색깔끼리 모은다. 틀에 있는 검은 선은 각 구역의 경계선이다. 같은 색깔의 종이 조각들을 틀의 각 구역별로 정리한다. 같은 색깔의 구역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모자이크 디자인을 만들고 나면, 각 조각들을 제자리에 풀칠한다.

여러분의 침실이나 집안 어디에든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그림 액자를 둔다. 구세주의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

주: 잡지에 있는 페이지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으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하여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영어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회개로써 여러분은 평화를 얻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5쪽.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 복음 8:12)

기도 아론 로메로 두아르테

저는 항상 우리 반 아이들이나 친구들, 가족에게 친절하라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가게 되었을 때, 쉬는 시간이면 저를 때리려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였습니다. 하루는 그 형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형은 저를 보자 돌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도 그 형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엄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 선생님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일년이 지났고, 저는 지금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기 힘들지라도 저는 옳은 일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기도 아론 로메로 두아르테는 다섯 살이며 파라과이 루케 스테이크 루케 워드의 회원이다.

